

문화유산을  
이야기하다, 담다

# 문화유산

VOL. 03 | SPRING 2023  
QUARTERLY MAGAZINE



# Contents

Part. 01 오래된 문화유산의 기억	Part. 07 문화유산 수리 이야기
문화재수리현장 속 주인공을 찾습니다 03	전주 풍패지관 서익현의 변형 원인 조사와 보수 31
	이숙기 좌리공신교서 보존처리 41
Part. 02 협회소식	Part. 08 문화유산 서가
정기총회 및 공제총회 07	다른 방식으로 보기 48
문화재수리협회 공제조합 안내 08	산수간에 집을 짓고 49
문화재수리 교육 및 자동경력인정 안내 09	문화유산의 근대와 탈근대 49
문화유산 한국원칙 선포식 10	풍경의 깊이
Part. 03 법령정보	Part. 09 문화유산 산책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 일부개정 13	수원화성 둘레길 50
Part. 04 문화유산 수리의 역사	Part. 10 업계동향
문화재 설계시공에 전념한 50년 삶의 기록, 최승일 15	2023년 상반기 문화재분야임금 54
	문화재수리자격증 시험 일정 55
Part. 05 잊혀진 사라진 것들	문화재관련기관 발간도서 소개 56
홍콩, 도심 감옥, ‘타이쿤(大館)’으로 리뉴얼 21	
Part. 06 문화유산 특별기고	Part. 11 협회안내
엘긴경의 대리석상 27	문화재수리란 / 협회안내 58
	문화재수리협회 회원리스트 60
	회원가입안내 65





Part. 01

## 오래된 문화유산의 기억

문화재수리현장 속 주인공을 찾습니다 | 03

오래된 문화유산의 기억

문화재 수리현장 속 주인공을 찾습니다.

문화유산 현장에서의 추억이 담긴 오래된 사진과 자료들을 함께 공유하고 기록을 남기는 과정을 <문화유산 담>을 보시는 분들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문화유산 수리의 역사"에서 인터뷰한 최승일 선생이 보관하고 계셨던 사진들을 소개합니다. 사진 하단에 이름이 없으신 분들을 아시는 분은 협회로 알려주세요! 다음 호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옛 문화유산 수리 현장의 옛 사진이나 자료 등을 소장하고 계신다면 협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추억을 나누어 보고자 하니 구독자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화재수리협회 : kcpra@naver.com



1964년 경복궁 근정전





1963년 경주 불국사



설계작업 중인 최승일 선생



경주 좌측부터 (故)황수영 전문화재위원, 최승일 선생, (故)신영훈 선생



1965년 6월 창경궁에서 명정전 실측도면 작성 중인 최승일 선생



Part. 02

## 협회소식

정기총회 및 공제조합 창립총회 | 07

문화재수리협회 공제조합 안내 | 08

문화재수리 교육 및 자동경력인정 안내 | 09

문화유산 한국원칙 선포식 | 10

### 협회소식

#### 문화재수리협회 2023년도 정기총회

2023.02.23.

협회는 지난 2월 23일 국립고궁박물관 별관에서 협회 임직원과 회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022년 사업결산 및 2023년 계획의 보고와 승인이 이루어졌다. 또한 2023년 신규 임원으로 조경 분야 박성주 세운(주) 대표와 보존과학 분야 김영택 주식회사 담원문화유산 대표를 선임하였다. 앞으로 협회에 다양한 전문업종의 참여가 기대된다.



#### 문화재수리협회공제조합 2023년도 창립총회

2023.02.23.

공제조합은 같은 날 국립고궁박물관 별관에서 조합원분들과 함께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창립총회에서는 김상임 다인종합건설(주) 대표가 이사장으로 선출되었으며 운영위원 및 감사 선임과 함께 공제규정 및 2023년 사업계획 등이 승인되며 문화재수리협회공제조합의 희망찬 시작을 알렸다.





문화재수리협회  
공제조합 안내

조합소개

- 설립목적 : 문화재수리사업 관련 사업자의 필요한 보증, 융자 등 공제 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제적 안정 및 공동이익실현을 도모하고 나아가 문화재수리사업의 발전과 사업자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
- 설립근거
  -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공제사업(보증, 손해공제, 융자 등)운영
- 주요사업
  - 자본금확인서 발급 : 문화재수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확인서 발급(근거 : 문화재수리업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6조)
  - 보증 : 문화재수리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입찰보증, 계약보증, 하자보수보증, 지급 및 기타보증
  - 융자 : 조합원이 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필요한 운영자금 및 공사 또는 용역의 시공자금의 융자
  - 공제 : 근로자 재해공제, 영업배상책임공제 등 조합원 복지향상을 위한 공제사업

조합원 가입 및 이용방법



※ 출자금 납부계좌 : 신한은행 140-014-005638(예금주 : 문화재수리협회)

주요상품 및 특징

- **보증**
  - 입찰보증, 계약보증, 하자보수보증, 선급금보증, 이행지급보증 등
  - 보증한도 최대 20배 부여(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상이)
  - 보증수수료 2천 원부터 적용
- **융자**
  - 출자금액의 최대 50% 융자 서비스 제공
  - 시중 은행대비 최저 이자율 적용
- **손해공제**
  - 조합과 손해보험사 업무협정을 통해 시중과 동일한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
  - 근로자재해공제 : 조합원에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사망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조합원의 손해배상책임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보상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되는 금액을 보상
  - 영업배상책임공제 : 조합원의 작업수행 또는 시설로 인해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

문화재수리협회공제조합 조합원 혜택

- 출자 후 적당지분액 상승을 통한 경제적 혜택(배당과 동일한 혜택)
- 유·무선을 통한 빠른 보증서 발급 제공
- 신용평가 서류 간소화에 따라 업무수월
- 타보증기관 대비 최대 7.5배~ 최소 1.5배 보증수수료 저렴
- 손해공제 시중 보험사 대비 최대 50%~최소 10% 저렴
- 시중 은행, 보험사 대비 현저히 낮은 융자 이자율 적용을 통한 조합원 사업운영 및 금융비용 절감 지원

문화재수리 교육 및  
자동 경력인정 안내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문화재수리 자율교육 진행

협회에서는 2022년도부터 문화재수리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문화재수리 자율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문화재 단청조사 실무(구본능 소장) 강의를 시작으로 △전통소재 단청의 이해(구본능 소장) △전통건축물의 드잡이 시공에 의한 보수(양만직 소장) △문화재수리의 기술, 문화재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대응(조재량) 주제로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처럼 협회 자율교육은 문화재수리 현장과 학계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문화재수리기술자가 강사로 참여하여 분야별 문화재수리에 대한 심도있는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 협회 교육에 이어 해당 문화재수리기술자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에서 진행되는 집합교육에서도 강의를 진행하는 등 전문교육의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앞으로도 협회에서는 문화재수리종사자 기술능력 함양을 위해 문화재수리 분야별 자율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구분	교육주제	강연자	교육일시	시간
1	문화재 단청조사 실무	구본능 소장	1. 28. (토) 14:00	3H
2	전통소재 단청의 이해	구본능 소장	2. 9. (목) 14:00	3H
3	전통건축물의 드잡이 시공에 의한 보수	양만직 소장	2. 18. (토) 14:00	3H
4	문화재수리의 기술, 문화재에 대한 인식의 변화	조재량 소장	2. 25. (토) 14:00	3H

협회에서 자율교육 이수시, 경력신고 간소화 서비스 제공

문화재 경력관리 수탁기관인 협회에서 주관·확인하는 ❶ 문화재수리 자율교육 이수 ❷ 문화유산 담 기고문 작성 시 별도의 신고없이 교육이수 내역이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 (www.chis.or.kr)에 등록된다.

그동안 문화재수리기술자가 직접 경력신고를 통해 자율교육 이수 내역을 신고하는 복잡한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협회에서 주관하는 교육이 아닐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문화재수리기술자가 직접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에 교육실적을 신고하여야 전문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❶ 자율교육 진행 중인 구본능 소장



❷ 문화재수리협회지 '문화유산 담'



문화유산 한국원칙  
선포식 참여

『문화유산 가치보존을 위한 한국 원칙』선포식 참여  
협회에서는 『문화유산 가치보존을 위한 한국 원칙』을 제정하기 위한 2022년 두 차례의 1,2차 토론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여인환 문화재수리협회장은 2022년 12월 20일 한국의집 취선관에서 개최한 『문화유산 가치보존을 위한 한국 원칙』 선포식에 참여하였다. 앞으로 『문화유산 가치보존을 위한 한국 원칙』이 문화유산의 보존에 있어 법·제도와 문화유산 직업윤리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사진 : 문화재청 제공

『문화유산 가치보존을 위한 한국 원칙』 주요 내용(2022.12.20.문화재청 보도자료 요약)

**서문**

- 원칙의 배경과 필요성, 원칙의 사용자, 적용범위와 사용방법을 기술
- 중요성(Significance)과 원상, 보존조치, 보존대상물, 관리와 활용을 정의

※ '중요성'은 현 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하여 지켜야할 미적, 사회적, 역사적, 학술적 가치의 총합으로 '원상'은 그러한 중요성을 구현하는 실질적 속성의 집합으로 정의

**제1장 보존원칙**

- 문화유산은 가치에 기반하여 보존하며, 가치는 원상으로 구현되는 바 이를 유지하고 개입 시 진정성·완전성·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 지향(제2조~제5조)

※ '원상'은 ▲위치, 배치 및 주변 환경, ▲형태와 디자인, ▲재료와 물질, ▲용도와 기능, ▲전통, 기법 및 관리체계, ▲의미, 맥락, 정신 등 무형적 속성으로 구현 (6개 속성)

- 문화유산 보존·관리·활용 과정에서 유산 공동체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하고 관리와 활용의 기본원칙과 방향에 대하여 기술

**제2장 가치의 이해와 적용**

- 문화유산이 지닌 가치는 미적, 사회적,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있으며, 해당 가치는 주기적인 재평가와 서술이 필요함을 기술

※ 현행의 예술적, 경관적 가치는 미적가치로 통합하고 기존에는 없던 사람들이 문화유산에 대하여 가지는 의미와 연관, 전통적인 사용 등의 무형적 측면의 가치인 사회적 가치를 신설

**제3장 보존과정**

- ①조사 및 연구, ②중요성평가, ③계획수립, ④계획실행, ⑤모니터링 및 관리의 순차적이고 체계적인 과정으로 진행토록 규정

※ 특히 중요성 평가 단계는 문화유산이 지닌 추상적 가치들을 실제 구체적인 속성과 연계하고 이를 중요성 평가 기술문(SoS)에 작성하도록 명시, 이는 향후 보존조치 과정에서 활용

**제4장 보존조치**

- 유형적 차원(유지관리, 손상방지, 수리, 복원 및 정비)의 개입과 무형적 차원의 조치(사용의 유지, 관련 전통지식·기법·기술의 전승)의 설명, 조건과 고려사항을 기술

< 문화유산 보존조치 세부구분 >

▲보존 (Conservation)

①유지관리 (Maintenance)

①손상방지 (Preventive work)  
②정기적 개수  
③보호시설물 설치

①수리 (Repair)  
②보수(Reinforcement)  
③복구(Restoration)

①복원 (Reconstruction)

②정비 (New Work)

사용의 유지 (Retaining use)

관련 전통 지식, 기법 및 기술의 전승 (Passing on traditional knowledge, techniques and skills)

**제5장 관리와 활용**

- 관리(보호체계 구축/정책과 계획 수립/자원 지원/조사·연구·개발/소통과 참여)와 활용(전시와 해설/교육과 체험/관광 자원화/산업화)시 기본원칙과 준수사항 규정
- 디지털 기술을 문화유산 보존·관리·활용 과정에 적용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과 원칙을 기술



Part. 03

## 법령정보

##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업무지침」 일부개정 2023.1.6.

### 개정 사유

-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업무지침」 제16조(설계승인) 제3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설계도서 처리기한은 있으나, 문화재청장의 보완 요청에 대한 발주자의 보완 이행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 등이 명시되지 않음
- 이에 사업의 적기추진 및 예산집행 향상 등을 위해 문화재청장의 설계도서 보완 요청에 따른 보완 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문화재청장의 문화재수리 설계도서 보완 요청과 이에 따른 발주자의 보완이행계획서 제출 등
-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업무지침 제16조제4항 내지 제6항 신설

- 문화재청장의 설계승인 조건이 있을 경우 설계도서 보완 완료서를 첨부하여 제출
-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업무지침 제16조제7항 신설

**제16조(설계승인)** ① 발주자는 실측설계가 완료되면 그 내용을 검토하고 문화재청장(또는 시도지사)으로부터 설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설계승인 심사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문화재 원형 보존을 위한 적합한 방법과 기술의 사용
2. 전통적 기술과 원래의 재료의 사용
3. 해당 문화재의 지역적 특성 고려

③ 문화재청장은 설계도서 접수 후 30일 이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지조사, 설계 검토, 위원회 심의 등 불가피한 경우 사유를 통지하고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문화재청장은 설계도서의 내용이 문화재수리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미흡할 경우 발주자에게 설계도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발주자는 설계도서 보완 요청 내용이 제18조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어 보완에 상당기간 소요될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문화재수리 설계도서 보완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완 이행기간이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문화재청장은 제출된 문화재수리 설계도서 보완 이행계획서의 적절성을 검토한 후 보완 이행기간을 정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문화재청장의 설계승인 조건이 있을 경우, 발주자는 설계도서를 보완하여야 하고,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문화재수리 설계도서 보완 완료서를 설계도서에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Part. 04

# 문화유산 수리의 역사



## 문화재 설계시공에 전념한 50년 삶의 기록,

최승일 전 한성기술개발공사 대표 / 최승일 문화재보수기술자

“최승일 선생님은 인터뷰 중에도 마지막에도  
“문화재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어디까지나 원형보존이지, 자기 의견이 들어가서는 안돼.”  
라고 말하며 문화재에 대한 깊은 애착을 드러냈다.  
건축과를 다니던 고등학생때부터 문화재 보수설계와 시공을  
평생 천직으로 삼으며 이어왔던 최승일 선생님을 만나보았다.”



### 남대문 현장, 그리고 임천 선생과의 만남

서울공고 건축과 재학시절 최승일 선생은 임천 선생(당시 국립박물관 학예관)을 만나 1961년 남대문 해체복원에 현장보조 역할로 일을 처음 시작하며 설계사무실에서 일을 배웠다고 한다.

“우리 선생님은 중앙박물관 학예관으로 계셨던 임!천! 이름이 두 자야. 내가 그분 수제자로 쭉 그분 밑에서 공부했어. 서울공고 다닐 때 고건축연구소라고 그리고 그전에는 신앙사라고 건설회사가 있었어. 임선생님께서 오래 이 계통으로 일을 하고 계시니까 신앙사에서 고건축연구소를 차려줬어 당시 태평로에다가... 나하고 그 다음에 윤홍로 씨하고 김주태 씨하고 김동현 선생님, 유문용.. 김동현 선생님은 일본 동경에 유학을 하고 오기도 했지.”

남대문 수리복원공사는 1961년부터 1963년까지 진행되었다. 현장에서는 임천 선생 총 감독하에 김동현, 신영훈 선생이 상근으로 있었으며 일본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김정기 박사 등이 참여하였고 그 외 홍익대학교, 서울공고, 성동공고, 경기공고 건축과 학생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화재, 국보 보물은 공사를 하기 전에 먼저 실측부터 했어. 썩은 건 썩은 대로 찌그러진 건 찌그러진 대로 일단 그대로 실측을 해서 다시 복원도를 그렸지. 남대문 공사에서는 김동현 선생, 신영훈 둘은 상임으로 있었어. 상임이라는건 뭐냐면 현장에서 상주하는 거야. 지금 말로는 공사감독이지, 안상열이는 나하고 같았고, 허진이는 흥대 나왔고, 박종석이는 국보건설단에서 나하고 같이 있었지. 흥대 건축과 학생팀도 있었고.. 남대문 해체복원공사 할 때는 흥대 건축과 애들이 남대문 옆에 남대문초등학교 있잖아. 거기에서 합숙을 하며 실측을 했지.”

- 서울 출생(1943.02.03.)
- 서울공고(52회 졸업, 1961년)
- 서울 남대문 보수공사 참여(1963년)
- 임천 선생님 제자
- 국보건설단 근무
- 광화문, 현충사 등 다수 설계 참여
- 한성기술개발공사 운영
- 경주불국사·진주성·수원성곽·강화전차지·무량사국학전·화엄사 등 다수 보수설계

#### 참여현장(현장대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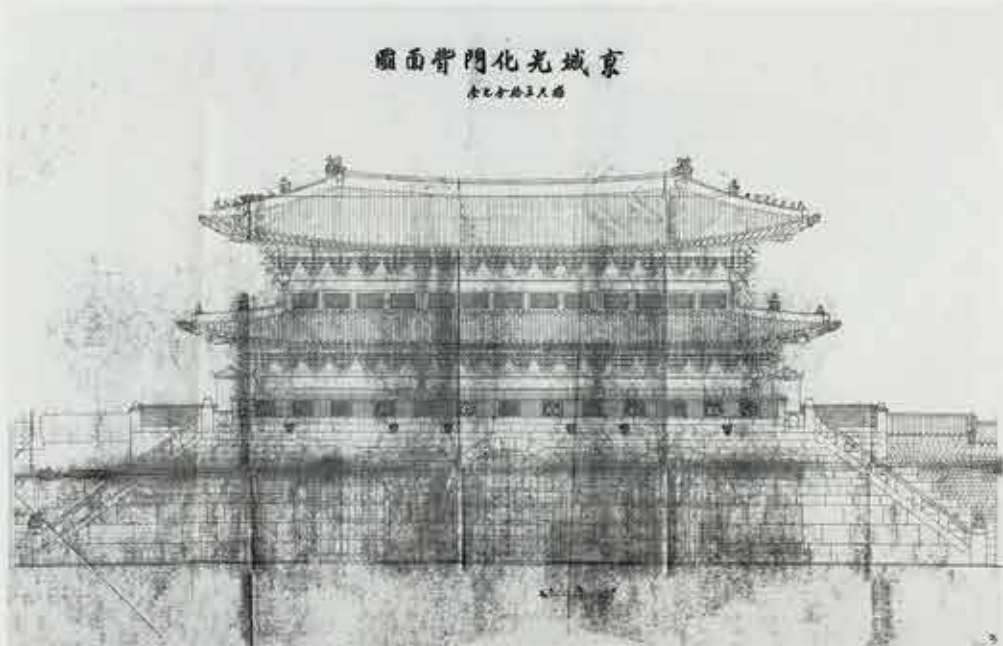
- 경복궁 근정전 보수공사 (진강건설, 2000.01. ~ 2003.10)
- 제주 관덕정 보수공사 (진강건설, 2003.12 ~ 2005.04)
- 강화 정수사법당보수공사 (건도, 2003.07 ~ 2004.10)
- 경복궁 소주방권역중건공사 (진강건설, 2014.03 ~ 2015.01) 외 다수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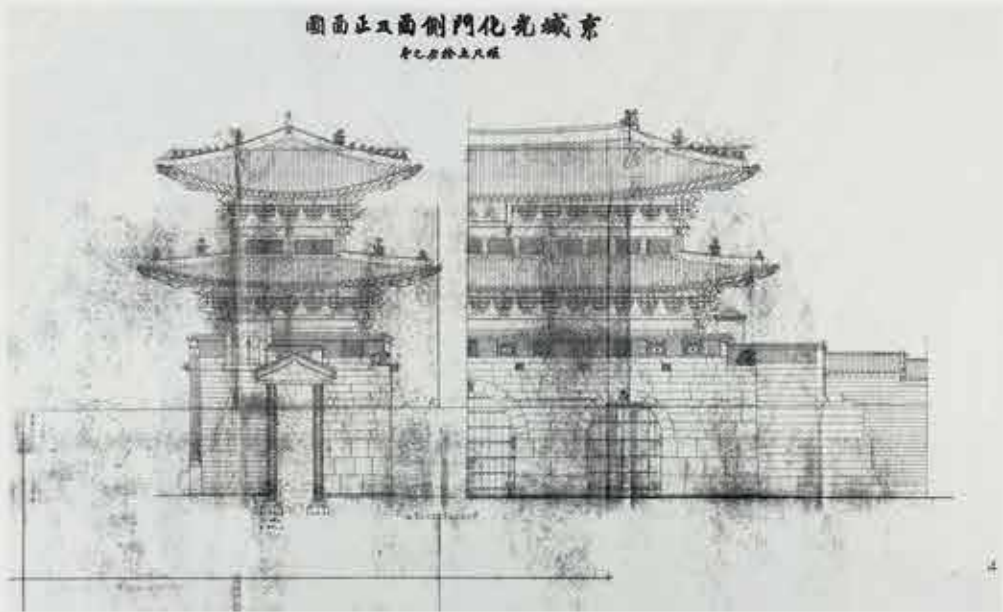
문화재에 대한 애착이 이어준 광화문과의 인연

2006년 문화재청에서 광화문 이전·복원이 발표되면서 광화문 크기가 논란이 되었을 때, 최승일 선생께서 보관하고 계셨던 일제강점기 해체 당시 광화문 도면 청사진이 확인되어 1920년대 해체되기 전 광화문과 1968년 복원된 광화문의 크기와 규모가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최승일 선생은 1968년 광화문 복원설계를 하면서 해체된 광화문의 원래 모습을 찾기 위해 김동현 선생과 함께 일제강점기 광화문 해체 당시 토목기사 다케우치가 실측했던 1920년대 도면을 어렵게 입수하였고 그것을 바탕으로 1968년 복원된 광화문을 설계하였다고 한다.

최승일 선생이 오랜기간 보관하고 있던 1926년 광화문 도면 복사본 (출처: 문화재청)



1926년 실측도면 경성광화문 배면도



1926년 실측도면 경성광화문 측면도, 정면도

함께 인터뷰에 응해주신 최승일 선생의 자제분의 이야기를 들으니 문화재보수설계를 담당하며 직접 그린 설계도면 청사진들을 오랜시간 동안에도 소중하게 보관해왔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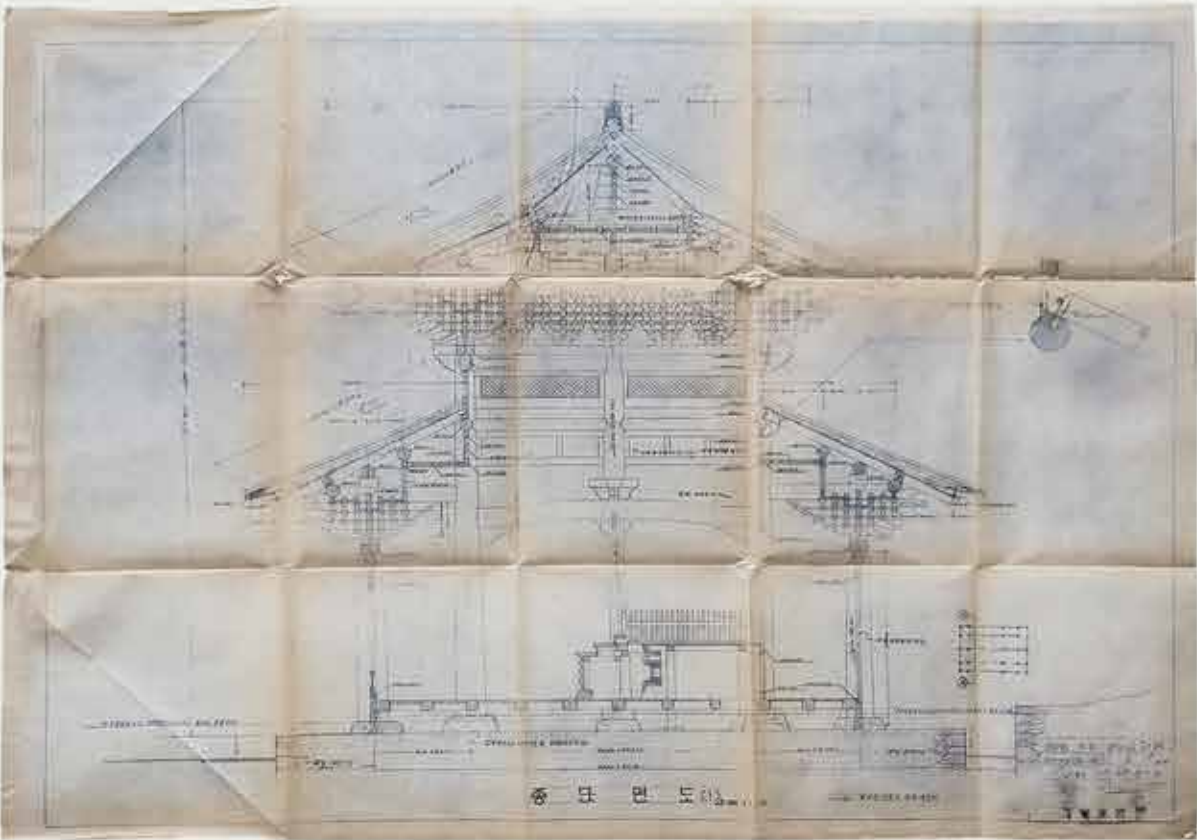
“설계도면 청사진들이 집에 지금보다 꽤 많이 남아있었어요. 집이 어려워져 여러 번 옮길 때도 그 도면들은 저희집 보물이었어요. 정말 다른 건 다 버려도 그건 못버린다고... 그렇게 보존해왔던 거예요. 아버지께서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셔서 저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고 그래서 광화문 복원할 때도 1968년도에 일본에 가서 입수하신 1926년도 도면과 다시 그걸 그린 것까지 다 보관하고 계셨어요. 2003년부터 경복궁 근정전 보수공사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시면서 광화문 권역으로 공사가 옮겨 진행할 때 이 도면을 다시 찾아 보게 되었어요.”

지금도 최승일 선생의 자택에는 현장에서 있으셨을 때 직접 그린 문화재설계도면 청사진들이 남아있다. 직접 무량사극락전, 화엄사천왕문 등의 문화재설계도면 청사진과 당시 현장에서의 사진들을 꺼내 보여주시며 옛 기억을 더듬었다.

“지금은 캐드로 하지만 예전에는 트레싱지에다가 직접 했거든, 그래가지고 청사진을 만들었어. 이게 다 직접 그린거야. 이 사진은 황수영 박사가 문화재전문위원장이었을 때 신영호 선생님과 석굴암 한참 아래 산 밑으로 굴러간 부재 옆에서 찍은 사진이야. 이건 석굴암 불국사 위에 있는 석굴암 공사, 결로공사에 참여한 사람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고, 안동사람인데 근정전 공사하고 사진하나 찍었지.”



최승일 선생 자택에 보관중인 청사진 도면철과 사진



최승일 선생이 직접 설계한 도면 청사진(극락전 보수 공사 중단면도 벽)





설계도면 작업 중인 최승일 선생

기억에 남는 현장들.. 국립종합박물관(현 국립민속박물관), 불국사 그리고 석굴암

임천 선생을 만나 문화재보수설계를 시작한 이후 국보건설단의 설계팀장의 거쳐 한성기술개발공사를 직접 운영하며 특별히 기억나는 일이 있는 물으니 "뭐 특별한 일이 있나? 현장에서 설계하고 실측하고 이런거지" 하시다 몇몇 현장을 떠올리며 수많은 현장 중에서도 국립종합박물관과 불국사 그리고 석굴암을 꼽았다.

국립종합박물관은 설계를 여러 차례 한만큼 당시 우여곡절도 많았고 우리나라의 전통건축의 주요한 목조 건축물들(법주사 팔상전, 화엄사 각황전, 금산사 미륵전 등)이 올라온 독특한 설계로 당시 직접 각각의 문화재에 직접가서 실측을 했으며, 개인적으로는 목조건물로 설계하고 싶었지만 콘크리트로 해야 하는 부분에서의 아쉬움들이 있었던 현장이었다고 한다. 불국사는 다 사라져 황폐화 되어버린 곳에 다시 복원하여 세워 그 뿌듯함을 지니고 계셨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참여하셨던 석굴암 보수공사는 일제강점기에 석굴암을 해체 복원하며 콘크리트로 동을 만든 후 발생하는 결로현상을 당시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콘크리트 동에 흠이 직접 닿지 않도록 이중의 동을 설계하는 공사에 참여하였다. 석굴암이 일제강점기에 해체복원되며 원래 모습에 대한 기록이 제대로 남아있지 않아 복원이 어려운 점과 주변에 스러져 있던 남은 부재들의 모습을 회상하며 아직까지도 안타까워하셨다. 선생님께서 직접 그림을 그리면서 석굴암 결로를 막기 위해 이중 동을 만든 보수공사 이야기를 설명하시는 모습에서 문화재에 대한 애정을 엿볼 수 있었다.

문화재보수현장 후배들과의 주경아독

최승일 선생 자제분께 2000년 3월부터 참여했던 경복궁 근정전보수공사 현장에서 일이 끝나면 후배들에게 문화재보수기술자 교육을 하셨다는 이야기도 전해들을 수 있었다.

"아버지께서 임천 선생님이 제자분들께 공부와 현장 중 어느쪽을 택하여 나가겠냐고 물으셨고, 김동현 선생님은 공부를 하고싶다고 하셔서 관리국에 남으시고, 아버지는 현장실무쪽으로 하겠다고 하셔서 실무 일을 많이 하셨던 걸로 알아요. 설계와 시공을 함께 하는 몇 안되는 분이셨어요. 설계뿐만 아니라 시공을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설계를 정확히 할 수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2000년에 경복궁 근정전 보수공사현장에서 10여 명의 학생들에게 문화재보수기술자교육을 하셨는데 굉장히 열심히 가르치고 재미있어 하셨어요. 실제로 기술자도 꽤 많이 배출 하셨구요. 나도 공부를 할 걸 그랬나보다 말씀하시기도 하셨구요. 근정전 보수공사 하시면서 정말 집중하셨고 평생하시던 술, 담배도 끊으셨지요."



경복궁 근정전 현장에서 문화재보수기술자교육 때 만든 교재

문화재보수 현장에 몸담고 있는 후배들에게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냐는 질문에 마지막까지 문화재를 있는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는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하시는 모습에서 이제는 손에서 놓은 일이지만 평생을 몸담은 일에 대한 열정이 느껴졌다.

"문화재보수는 이젠 새 건물 설계가 아니라 보존하는 거지. 문화재는 그대로 모사해서 하는게 중요하지... 문화재는 원래의 모습을 훼손해선 안돼. 문화재 그대로 실측을 해서 복원하는거지 이젠 새로 하는 설계가 아니거든. 좌우지간 문화재를 하는 사람들은 원형복원, 원형보존에 중점을 두는거지 자기의견이 들어가면 안돼. 자료를 찾고 실측을 해서 그대로 복원하는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히 실측하고 발굴하고 그래야지. 그 외의 것은 들어가서는 안되는 거야."

3대를 이은 문화재에 대한 애정

최승일 선생은 평생 문화재 설계시공일을 하며 집에서도 자료를 수집하고 문화재 관련 이야기를 가족들과도 함께 나누셨다고 한다. 이런 연유인지 최승일 선생의 문화재에 대한 애정은 대를 이어가고 있다. 최승일 선생의 따님은 아버지에게 문화재보수를 배우며 같은 업계에 종사하는 정구한 기술이사(㈜금경종합건설)를 만나 결혼하였고, 손자인 정도영 씨도 (주)금성종합건축사무소에서 문화재보수설계에 종사하며 3대를 이어가고 있다.



Part. 05

# 잊혀진 사라진 것들



## 홍콩, 도심 감옥, '타이퀸(大館)'으로 리뉴얼

또 하나의 핫한 장소로 자리매김 우리근대건축연구소 김정동·육원대학교 명예교수

다시 찾아온 3·1절이다. 시간이 갈수록 그 값짐이 더해 간다. 3·1절의 핵심 무대는 파고다 공원과 인사동 「태화 기독교회관」이다. 그중 삼일독립선언 33인의 현장이었던 「태화기독교회관」, 그 현장이 훼손된 것이 못내 아쉽다. 무슨 사정이 있었길래 그랬는가.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서대문형무소이다. 지금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이다. 그 형무소는 1908년 문을 열어 1987년 문을 닫을 때까지 80년간 온갖 사연을 담아내던 곳이다. 한국 근대사의 한 현장인 것이다. 이후 개발 바람에 멸실되어 아파트로 변하기 직전 몇몇 요구에 의해 일부가 남게 되었던 것이다. 그 그루터기 덕분에 우여곡절 끝에 몇몇 건물이 보존 처리되었고 그 후 30여 년이 지나는 동안 현재의 모습으로 남게 된 것이다.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입구, 안쪽에서(필자 촬영, 2009년 3월 1일)

감옥을 상징하는 말이 '붉은 벽돌집', '큰 집'이다. 모든 사람이 기피하는 곳이다. 옛날 어른들은 하도 억울한 일을 많 이 당해서 그랬는지, 집안에 언짢은 일이 생기면, '집안에 의사 한 놈, 세무 공무원 한 놈, 경찰관 한 놈만 있으면 좋 겠다'라고 하셨다. 그런데 지금도 그 '뻥'이 유효하단 느낌이 든다. 하여튼 여전히 감옥은 갈 곳이 못 되는 것 같다.

필자는 30여 년 전 초기 조사 시 형무소 사형장을 집 드나들 듯 들어 다녔다. 칙칙하고 음산한 지하 시체실, 삭아 빠진 도르래와 로프, 너털거리던 바닥 널판 모두 점검한답시고 만져보고 두들겨 보았다. 원래 대로 보존하기 위해 서였다. 어쨌든 지금도 실감나게 존치되고 있어 다행이다. 감옥 건축물을 공부해 보면, 감옥 안에는 여러 작업장 시설도 있는데, 그중 벽돌 공장도 있었다. 죄수들을 활용해 벽돌을 만들어 낸 것이다. 인건비 안 들고 벽돌을 찍 어 냈는데 그것은 주로 감옥 건축 등 관영공사에 쓰였다. 즉, 벽돌은 관급자재였던 것이다.

김해경 즉, 이상(李箱, 1910~37)은 죽기 7개월 전인 1936년 가을 「추등잡필」이란 글을 썼는데 그의 건축공부 의 일면을 보여준 글이다. 경성고공 건축과 학생의 마포형무소 가을 현장 실습을 기록한 것이었다.

“..전문(專門)한 것이 나는 건축인 관계상 재학시대에 형무소 견학을 간 일이 더러 있다. 한번은 '마포(麻浦)벽돌 공장'을 보러 간 일이 있는데 그것은 건물을 보러 간 것이 아니라 벽돌 제조의 여러 가지 속을 보러 간 것이니까 말 하자면 건축재료 제조 실재를 연구하는 한 시간이었다. ...클라스 전부라야 열두명이었는데 그날 간 사람은 겨우 칠, 팔명에 불과하였다고 기억한다. 옥리(獄吏)의 안내를 받아 공장 각 부분을 차례차례 구경하기로 되었다....”<sup>1)</sup> 어쨌든 그 글을 통해 당시 감옥 공장을 그나마 들여다 볼 수 있어 다행이다.

1) 이상(李箱), 「추등잡필(秋燈雜筆)」, 대한매일신보, 1936.10. 14·28쪽.  
2) 율고, 「김해경 퍼져 못한 건축의 날개」, 《머릿말》, 1982.1



홍콩, 도심 감옥, '타이쿤(大館)'으로 리뉴얼  
 또 하나의 핫한 장소로 자리매김

우리군대건축연구소 김성동 책임대장과 명태교수

이제 홍콩에 감옥(형무소)을 예술관으로 만든 현상이 있어 다시 가본다. 홍콩은 빅토리아 하버(Victoria Harbour)를 끼고 홍콩섬과 카오룽(九龍, Kowloon) 반도 지역으로 크게 나뉘져 있는데 최근에는 홍콩섬이 오히려 더 활력이 있어 보인다. 카오룽 지역은 중국 본토에 이어져 더 중국적 느낌이 들기 때문인 것 같다. 지난해 홍콩섬 센트럴 지역은 반 중국(反 習近平, 1953-) 데모의 현장이었다. 마치 깃발 든 혁명같이 느껴졌다.



홍콩 정부는 옛 건축물을 해구(解構, deconstruct), 즉 부수고 새 건축물을 짓기보다는 옛것의 보존과 활용에 더 관심을 쏟고 있다. 홍콩이야말로 엄청난 땅값에도 불구하고 예 그대로그가 더 값지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늦었지만 다행인 것이다. 사실 이 땅에는 100층짜리 고층 빌딩을 짓는다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곳이다. 그런데 이곳은 3~4층 건물이 그래도 높은 것이다. 대부분 1~2층짜리이다. 홍콩의 이러한 변화는 홍콩 정부 주도로 '역사적 건물 재활성화' 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 부터이다.

홍콩 경찰 휘장, 카오룽 반도에서 본 홍콩섬, 마천루 그림, 키 자랑을 하고 있다. 위의 꽃 그림은 홍콩의 상징인 자형화(紫荊花, bauhinia)이다. 아이 엠 베이 중국은행 뒤편에 타이쿤이 있다.

1995년 이 블록 전체가 법정 고적(古蹟, Heritage)이 되었다. 문화재가 된 것이다. 홍콩에서는 오래된 것을 고적이라 한다. 2004년 여기 있던 경찰 관서가 다른 곳으로 이전했다. 이어 2006년 빅토리아 시대의 감옥도 문을 닫았다. 2008년 홍콩 정부 주도로 이곳의 활성화 계획(Revitalisation Project)이 수립되었다. 10여 년 간의 리모델링을 거쳐 2018년 '타이쿤(Tai Kwun, 大館)'이란 이름으로 다시 문을 연 것이다. 광둥어로 '큰 집'을 뜻한다. 우리도 마찬가지로이다.

타이쿤은 전면 저지대부터 후면 고지대까지 하이아라키가 다르며 크게 세 커로 나뉘져 있다. 타이쿤 배치도를 보면 가장 맨 앞이 할리우드 로드(Hollywood Road, 荷李活道)이다. 맨 앞 2층 건물이 경찰서, 바로 뒤 4층 건물이 건물이 막사(barrack)다. 막사 뒤의 건물이 1862년에 세워진 감옥 장루(長樓)이다. 검열광장(檢閱廣場) 주변의 건물은 감옥들이다. 건물들은 지하와 지상으로 각각 연결된다. 타이쿤은 입장료가 없어서 어느 곳에서나 진입이 가능하다. 1841년 홍콩을 식민지로 삼은 영국은 그해부터 이곳에 경찰서, 법원, 감옥을 차례로 지었다. 배치도의 가장 윗부분 왼쪽 길가의 작은 건물이 1850년대 처음 세워진 게이트 건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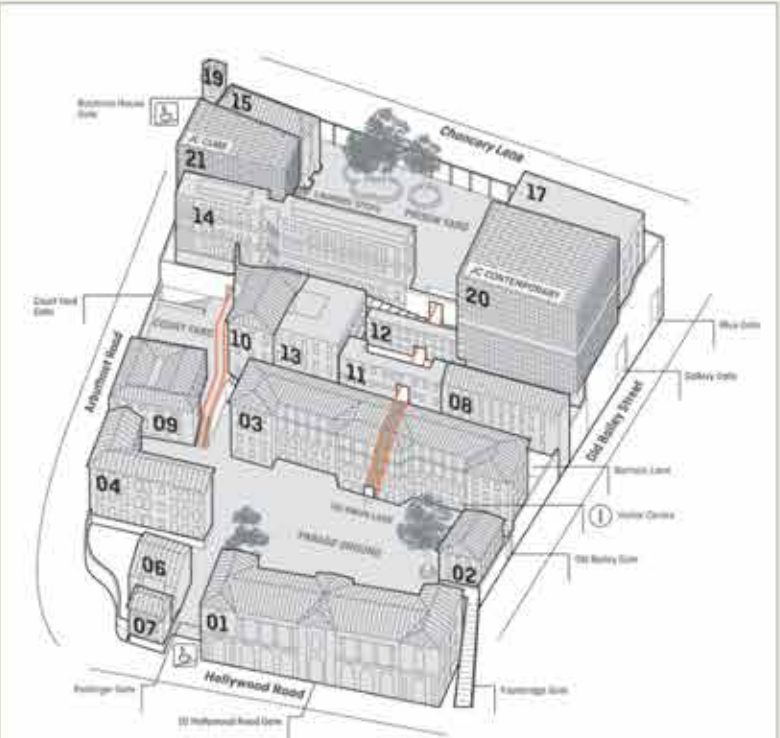
타이쿤은 과거 영국 빅토리아(域多利)시대 식민지 초부터 홍콩 중구에 세운 경찰서, 재판소, 감옥으로 이뤄진 공간이다. 1850년대부터 홍콩의 법과 질서를 지키는 일을 해 왔다. 투 시도형 역도는 준공 후의 모습이다.(자료: 전시장의 전시물)



영국 식민지 시대의 경찰서. 1919년 3층짜리로 건축된 것인데 그 후 좁아져서 1개 층을 증축했다



두 건축기가 동창한 프로젝트는 10년 만에 마무리됐다. 4천100평 규모의 단지 뒤편에 자리한 JC 컨템포러리는 신축 건물 2곳 중 하나이다. 공식 명칭은 '타이 쿤 문화예술센터, 홍콩'이다.



타이쿤(大館, tai kuwn) 배치도, 골목, 마당, 광장들을 연결하고 있으며 100여 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출처 : [https://www.taikwun.hk/en/visit/map\\_directory](https://www.taikwun.hk/en/visit/map_directory)

건축물이 세워진 순서에 따라

19	1850년대	자형화 하우스 게이트(홍콩 중국 반환 기념실)
10	1862년	감옥 소장실
14	1862년	감옥, 죄수 식당 부엌
03	1864년	막사(barrack)(방문객 센터)
04	1864년	기혼 관리자 숙소
06	1896년	기혼 관리소장 숙소
07	1896년	미혼 관리자 숙소
12	1910년	감옥, 빅토리아 시대 재현
09	1914년	중앙 재판소
15	1915년	감옥
01	1919년	홍콩 경찰 본부, 중구 경찰서 로비
08	1921년	목욕탕
02	1925년	무기고
11, 13	1928년	감옥
17	1931년	감옥, 사무실
20, 21	2018년	신축 예술관(JC)



홍콩, 도심 감옥, '타이퀸(大館)'으로 리뉴얼  
또 하나의 핫한 장소로 자리매김 우리근대건축연구소 김성동 책임대학과 명예교수



2018년 5월 문을 연 타이퀸, 이 경내는 감옥, 경찰서 등이 문화예술 공간으로 탈바꿈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4층짜리 타이퀸 막사(왼쪽)와 2층짜리 경찰서. 두 건물은 가운데광장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있다.

영국과 홍콩의 건축양식이 만들어 낸 풍경이 이채롭다.

'미드 레벨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중환 할리우드 10호에 이르면, 왼쪽으로 짜집기 하듯 웅기종기 모여있는 건물군이 보인다. 붉은 벽돌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영국식 건축물들로 둘러싸인 마당 공간이 펼쳐진다. 관계없는 거리 객이 쉬어 갈 수 있는 공간이다.

1919년 지어진 2층짜리 경찰서가 맨 처음 보인다. 경찰서 뒤로는 타이퀸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 중 하나인 막사가 마주 보고 있다. 1864년 세워진 4층 건물로 주로 경찰들이 숙식을 해결하거나 사무 공간으로 활용한 곳이다.

이제는 모두 레스토랑, 카페, 바, 기념품 가게 등이 들어서 있다. 건물들이 둘러싼 내정은 다목적 광장이 되어 있다.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서커스 공연이 거의 상설로 이뤄지고 있다. 타이퀸은 입장료 없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



홍콩 원주민 시대 그리고 홍콩 식민지 시대 감옥들. 그 사이로 하늘을 향해 치솟은 마천루가 홍콩적이다.



타이퀸 전시실 감옥 재현 영상

막사 가운데로 뚫린 통로를 따라 들어가면 사방이 좁은 감방들이다. 작은 감방들이 줄을 잇고 있다. 너무 형무소 답지 않다. 오히려 서대문형무소가 더 감방답다. 감방은 감방다워야... 타이퀸의 감방에는 죄수 생활의 모든 것이 영상으로 재현되고 있다. 냄새 나는 방이 아니라 향기로운 방이다. 어쨌든 리얼하지 않다.

한 감방에서는 베트남의 호찌민(胡志明, 1890-1969)이 갇혀 있던 상황을 전시하고 있다. 그는 1930년 홍콩에서 인도차이나(베트남) 공산당을 창당했다. 1931년 6월 홍콩에서 영국 경찰에 체포되었다. 그는 이곳 경찰서, 재판소, 감옥을 두루 다 섭렵했다. 1932년 12월 석방되었다. 이듬해 1월 홍콩 내 중국 공산당의 도움으로 홍콩을 탈출, 중국 본토로 건너갔다.

이곳 호찌민의 방은 특별하다. 호찌민은 당시로는 비교적 장수했다, 79세까지 살았다. 홍콩 이곳은 그에게 남다른 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베트남전쟁(1960-75)을 겪은 베트남 사람들이 크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

타이퀸은 2019년 유네스코 아시아 태평양 문화유산보호 상을 수상했다. 중국, 영국, 홍콩의 역사를 보존 재 활용, 새로운 볼거리를 만든 작업, 관광 명소화 작업이 모두 성공한 것이다. 세계 최초의 일이다. 이제 홍콩에서도 가장 '핫'한 공간이 되어 있는 것이다.



서대문형무소 경내, 여옥사(女獄舍) 다시 지어진 것이다.

아직 아쉽고 갈 길이 멀다. 이제 문화재, 독립운동 관계 관련 기관단체들이 주관자일 텐데, 반성할 점이 없었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sup>3)</sup> 가뭄에 콩 나듯 선심성 예산만 투입됐을 뿐이다. 대통령의 관련 행사를 서대문형무소에서 치르고, 일본 전 수상이 참배 차 오자 관계자들이 잠깐 관심을 내 비쳤을 뿐 어쨌든 이 일에 가장 수고한 사람은 서대문 구청 담당자와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사람들이다. 그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없었으면 그나마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것이다.<sup>4)</sup> 혐오 시설, 마이너스 유산이 더 리얼한 시대사인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그중 그 일에 참여한 벽돌 장인들에게 모든 공로를 돌리고 싶다. 대부분의 건물은 목수 장인들이 주인공인데 서대문형무소만큼은 벽돌쟁이들의 몫이었다. 죄도 안 졌는데 사명감으로 여름 땀방에 벽돌 쌓기 하던 그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다. 벽돌쟁이들에게 감옥은 일거리이고 먹거리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을 보면 답답할 뿐이다. 우리가 홍콩보다 먼저 시작했는데 홍콩이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3) 문화재관리국은 1988년 사적(제 324호)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1990년부터 철거가 다시 시작되었다. 100여 개 건물 중 11개 동안 남기고 철거되었다. 담장, 망루도 훼손되었다. 부지 면적은 거의 3분 2가 경역에서 제외되었다. (남은 면적은 9천 평이 안 된다) 1998년 박물관, 즉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이라는 명칭으로 개관했다.  
4) 박영목, 『식민지 근대감옥, 서대문형무소』, 알빛, 2019



Part. 06

## 문화유산 특별기고

“우리나라에서는 큰 이슈가 되지는 못했지만 영국과 그리스 사이에는 잊을만 하면 다시 제기되는 논쟁이 있었다. 이 논쟁의 중심에는 엘긴경의 대리석상이 있다. 논쟁의 요지는 엘긴경이 1807년에 파르테논 신전에서 떼어내, 영국으로 가져간 조각상들을 그리스로 되돌려달라는 것이다. 현재 이 조각상들은 대영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우리 입장에서는 먼 나라의 이야기로 들릴지 모르지만 여기에는 많은 우여곡절이 숨겨져 있다. 엘긴경의 대리석상에 대한 이야기는 19세기 초반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서양에서 문화유산에 대한 근대적 인식과 이에 대한 이론이 19세기 후반에 발전하기 시작했다고 보면 엘긴경의 대리석상은 그 저변에 깔려있다고 볼 수도 있다. 20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이야기를 풀어내어 그 과정을 들여다보고 서양의 문화유산 이론의 발전 과정에 대해 다 같이 생각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먼 나라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 첫 번째 이야기 모험의 시작

스코틀랜드 출신인 엘긴경은 엘긴(Elgin) 가문의 7번째 백작이며 본명은 토마스 부르스(Thomas Bruce, 1766~1841년)이다. 그는 브룸홀 저택(Broomhall House)에서 태어났으며 어려서부터 영국과 프랑스 등지에서 고등교육을 받아 교양있는 청년으로 자랐다. 이후에는 군복무를 하였으며 1790년에는 스코틀랜드를 대표하는 의원으로 선출되어 런던 의회에서 활동하였다. 이듬해부터 엘긴경은 그의 활동 영역을 해외로 넓혀 1791년에는 비엔나, 1792년에는 브뤼셀, 1795년에는 프러시아 등지에서 영국을 대표하는 대사로 활동하였다. 엘긴경은 탄탄대로를 걸어 그의 사회적 지위는 대내외적으로 매우 공고히 다져졌다.



1. 엘긴경 초상화

엘긴경과 파르테논 신전의 조각상과의 인연은 그가 태어난 브룸홀 저택을 매개로 맺어졌다. 엘긴경이 태어난 브룸홀 저택은 1702년에 처음 지어졌는데 이후 몇 차례의 리모델링 과정을 겪었다. 엘긴경도 브룸홀 저택을 리모델링 했는데 이때 토마스 해리슨(Thomas Harrison, 1744~1829년)이라는 건축가를 고용하였다. 토마스 해리슨은 브룸홀 저택을 리모델링 하면서 엘긴경에게 그리스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 당시 토마스 해리슨은 고대 그리스 문명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차 있었다. 그렇다면 당시 해리슨은 어떻게 이와 같은 열망을 갖게 되었을까? 이는 당시 사회적 분위기와 연관되어 있다. 그럼 당시 그리스를 향한 영국의 분위기를 잠깐 살펴보자.



2. Broomhall House



3. Thomas Harrison



17세기 영국에서는 경제적 풍요로움 속에서 그랜드 투어(Grand Tour)가 유행하였다. 그랜드 투어는 말 그대로 대여행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는 당시 유럽대륙을 횡단하는 영국인들의 여행을 일컫는 것이었다. 이후 그랜드 투어는 주변국으로도 전파되어 많은 젊은이들과 지식인들이 이런 여행을 떠났다. 대문호인 괴테도 이런 여파에 의해 이탈리아로 여행을 떠났으며 그 결과물로 『이탈리아 여행』이라는 책을 남기기도 하였다. 그랜드 투어는 심지어 일본까지 전파되어 조선으로 여행하는 일본인들이 생기기도 하였다. 여하튼 당시 영국의 여유있는 상류층에서는 자체를 프랑스나 이탈리아로 여행을 보내 외국어와 국제적인 감각을 키우게 하였다. 그리고 18세기 말에 이르러서는 이탈리아를 넘어 그리스에 대한 호기심이 발생하였다. 당시 영국인들에게 그리스 는 서양 문명의 발상지로 여겨졌다. 그리스 문명은 고대 문명으로서 로마 문명과는 또 다른 충격을 주었다. 그리스 조각상들의 사실적이고 역동적인 표현은 절제된 로마의 조각상들과는 달랐으며 그리스 문명은 로마 문명 발상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도 매우 흥미롭게 여겨졌다. 이는 건축과 예술 분야에서는 로마와는 또 다른 기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기도 하였다. 토마스 해리스는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에 휩쓸렸던 건축가였던 것이다. 토마스 해리스으로부터 강한 영향을 받은 엘긴경은 결국 그리스 문명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런 와중에 엘긴경에게 반가운 소식이 들렸는데 그것은 바로 엘긴경이 영국을 대표하여 오스만투르크 제국의 대사로 임명되었다는 것이었다.

당시 오스만투르크 제국은 세계의 열강 중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 중 하나였다. 이러한 강대국에 영국을 대표하는 대사로 임명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엘긴경의 사회적 지위가 매우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엘긴경에게 개인적으로 더 반가웠던 것은 당시 그리스가 오스만투르크 제국에 속해 있다는 사실이었다.

당시 그리스는 지금처럼 엄연한 독립국가가 아니었다. 그리스는 당시만 해도 이미 1세기경에 로마 제국에 흡수되었다가 15세기 후반에는 오스만 제국의 영토로 편입되었다. 그러므로 그리스에 대한 인식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아주 달랐다. 당시 사람들은 그리스 문명을 기원전 5세기 경에 최전성기를 누렸던 문명으로 받아들였고 당시에는 신비감에 휩싸인 잃어버린 고대 문명쯤으로 여겼었다. 그렇기 때문에 오스만투르크의 대사로 부임한다는 것은 그리스 지역과 그 문명의 흔적에 접근할 수 있다는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갖추는 것이기에 엘긴경에게는 큰 행운이었던 것이다. 게다가 당시에는 외교관 겸 고고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 해외 근무 기회는 곧 해외

유적을 탐사하고 또 유물을 수집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는 분위기가 만연해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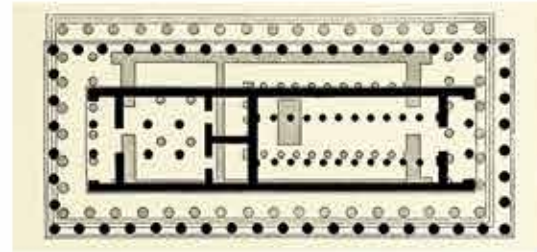
엘긴경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우선 그는 출발하기 전에 그리스 문명을 기록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이는 자금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선 국가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결국 그의 요청은 거부당했지만 그는 뜻을 굽히지 않고 차선책으로 개인적으로 비용을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결국 그가 보유하고 있었던 가문의 부와 개인대출까지 받아 비용을 충당하였다.

그는 동시에 그가 그리스 내에서 탐방할 유적지를 모색하였는데 최종적으로 그가 선택한 대상지는 아테네에 소재한 파르테논 신전지역이었다. 파르테논 신전은 원래 아테네 여신을 모시기 위한 목적으로 건립하였다. 파르테논 신전은 아크로폴리스 언덕 위에서 언덕 아래와 그 앞으로 전개되는 바다까지 바라보는 형상을 하고 있어 가장 눈에 띄는 핵심 건물이었다. 그러므로 엘긴경이 파르테논 신전을 탐방하기로 마음 먹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다.

파르테논 신전은 기원전 447~432년 페리클레스(Pericles, 기원전 495?~429년)에 의해 한 차례 중건되었다. 신 파르테논 신전의 중심과 구 파르테논 신전의 중심은 약간 벗어나 있었다. 그리고 신 파르테논 신전의 길이가 구 파르테논 신전에 비해 약간 더 길었다. 파르테논 신전을 중건한 페리클레스는 민주정치의 전성기를 이끈 인물이었다. 그는 대내적으로 스파르타와 화약(和約)을 맺는 등 아테네의 국력을 강화하였고, 대외적으로는 당시 최강의 열강이었던 페르시아와 카리아스의 화약을 맺었다. 이처럼 대내외적으로 그리스의 안정을 꾀한 시점에 건립한 것이 바로 파르테논 신전이었던 것이다.



4. 민주정치를 강화한 페리클레스



5. 신구 파르테논 신전 평면 비교

파르테논 신전의 원형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당시 파르테논 신전은 백색 대리석을 깎아 만들었으며 파르테논 신전의 정문은 우리와는 달리 지붕의 박공면이 보이는 쪽에 놓였다. 그러므로 파르테논 신전은 진입축이 긴 모습을 하였다. 이 정면 상부에 조성되는 삼각형 면을 페디먼트라고 하는데 여기는 당시 최고의 조각공으로 알려졌었던 피디아스(Phidias, 기원전 480~430)가 깎은 조각상으로 장식하였다. 페디먼트부의 조각상 테마는 아테나 여신의 탄생과 바다의 신 포세이돈과 아테나와의 경쟁이야기로 하였다. 그리고 건물의 측면 상부에는 에토프라고 불리우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위는 기둥과 지붕 사이에 해당한다. 여기에는 반인반수상이 페르시아인을 제압하는 조각상을 장식하였다. 내부에도 기둥 상부에 조각을 하였는데 이 부분을 프리즈라고 한다. 여기에도 수많은 조각상이 존재했는데 어떠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쟁거리이다. 다만 프리즈에 새긴 조각상은 밑에서 보기에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는 방문자에게 보여주기 위한 용도라기 보다는 아테네 여신에게 바치는 조각상이라고 여겨지고 있다. 이렇게 화려하게 조각한 백색의 조각상은 조각 후에 채색을 하여 그 화려함을 더하였다. 엘긴경이 관심을 둔 것도 바로 이 조각상들이었다. 중건 이후 약 1,000년이 되는 시점인 5세기 경에 파르테논 신전은 교회로 개조되었다. 교회로의 탈바꿈은 기존 건물에 구조적 변형을 초래하였다. 그리고 오스만투르크 제국으로 흡수된 15세기에는 이슬람 사원으로 또 다시 개조되어 높은 첨탑을 갖추게 되었다. 이후 17세기 후반에는 베니스와 오토만 제국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는데 당시 오토만 제국은 파르테논 신전을 화약고로 활용하였다. 베니스인들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여자와 어린이들이 300여 명을 파르테논 신전에 같이 머물도록 하여 방패막이로 활용하였다. 그러나 베니스인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파르테논 신전을 향해 대포를 쏘으며 불길이 옮겨 붙은 파르테논 신전 내부의 화약은 대폭발을 일으켜, 여자와 어린이들은 물론 건물의 지붕과 기둥의 상당부분이 심각한 훼손을 입게 되었다. 이 이후로 파르테논 신전은 폐허로 남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배경을 안고 있는 파르테논 신전을 대상으로 무엇을 할지를 정해야 했다. 초기에 엘긴경의 계획은 파르테논 신전 및 주변 유물과 유적에 대한 모사, 측량, 분석 등 3가지 행위를 하는 것이었다. 당시에 그가 계획한 행위를 토대로 사람들은 초기에 가졌던 엘긴경의 의도를 파악하고 있었다. 즉, 그의 초기 의도로 보면 당시에는 파르테논 신전을 분리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장소로 무언가를 옮긴다는 의도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대상지와 행위를 정한 다음 그는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인력을 구성하였다. 우선 그를 대신해서 현장에서 작업을 지휘할 사람으로 엘긴경의 개인 비서겸 목사였던 필립 헌트(Philip Hunt, 1772~1838년)를 지목하였다. 그가 대리인이 필요했던 것은 그의 부임지가 오스만투르크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현 이스탄불)이었기 때문이다. 다들 알다시피 콘스탄티노플과 그리스 사이에는 에게해가 있어 거리가 너무 멀었다. 그리고 그는 영국의 대사라는 공식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했으므로 전적으로 파르테논 신전에 매어 있을 수도 없는 입장이었다. 이러한 엘긴경의 상황에 비추어봤을 때 그를 대신해서 작업을 진두지휘할 대리인은 꼭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으로 현장에서 모사도를 그릴 화가들이 필요했는데 이들은 그리스로 가는 길에 이탈리아에 들러 섭외하기로 하였다.

이처럼 대상지, 작업목표, 인력, 자금 등을 확보한 엘긴경은 배를 타고 여정을 떠났다. 그가 부임지로 떠난 시점은 1799년 9월 3일로 당시 엘긴경의 나이는 33세였다. 그의 옆에는 11살 연하의 부인이었던 메리 니스벳(Mary Nisbet, 1778~1855)과 그의 비서였던 필립 헌트가 함께 자리하고 있었다. 그리스로 가는 길에 엘긴경은 이탈리아 남부의 시칠리아섬에 들러 모사도를 그릴 화가들을 섭외하였다. 결국 현지 조경 화가였던 지오바니 바티스타 루지예리(Giovanni Battista Lusieri, 1755~1821년)가 동행하기로 하였다. 해당 업무를 수락한 지오바니는 그와 함께 작업할 화가들을 직접 뽑아서 팀을 꾸렸다. 이렇게 해서 엘긴경의 개인 프로젝트를 수행할 팀이 다 짜여졌으나 그들은 그들 앞에 놓인 난관들을 예측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문화유산 담 Vol.4호에 이어집니다.



6. 지인들에게 파르테논 신전의 조각상들을 보여주고 있는 피디아스(레티스 앞이 타마, 1868년)  
7. 파르테논 신전 내부 복원도 8. 건물 부위 명칭 9. 15세기의 파르테논 신전



Part. 07

## 문화유산 수리 이야기

전주 풍패지관 서익헌의 변형 원인 조사와 보수 | 31

이숙기 자리공신교서 보존처리 | 41

문화유산명 : 전주 풍패지관 (全州 豐沛之館)  
지정명 : 보물  
조성연대 : 조선시대  
위치/소재지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3가 1번지  
소유자/관리자 : 국유/전주

### 전주 풍패지관 서익헌의 변형 원인 조사와 보수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 | 곽순조

#### 1. 공사개요

전주객사 풍패지관은 정유재란 때(1597) 소실되었던 것을 선조대인 1610년 전후에 다시 중건한 건물이다. 그 후 고종 9년(1872)의 대대적인 중수가 있었고 1975년 보물로 지정된 이후에 여러 차례 수리를 거쳐 오늘날의 모습으로 남아있다.<sup>1)</sup> 서익헌은 정면 5칸, 측면 3칸의 단층으로 한쪽은 팔작지붕이고 다른 쪽은 맞배지붕이다. 가운데에 정면 1칸과 측면 2칸의 방을 배치하였고 나머지는 넓은 대청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둥이 서측방향으로 기울고 시계방향으로 돌아감이 지속되고, 건물의 기울어짐으로 인한 부재의 이탈과 처짐이 나타났으며, 건물 변형에 따라 익공·첨차·화반 등 포부재들이 훼손되는 양상이 확인되어 서익헌을 완전 해체·보수하였다.



전주 풍패지관 착공전 전경



전면 (보수 전)



전면 (보수 전)



주간포 (보수 전)

서익헌 보수 전 현황

1) 문화재청, 『전주객사 수리·정밀실측보고서』, 2004, 104~122쪽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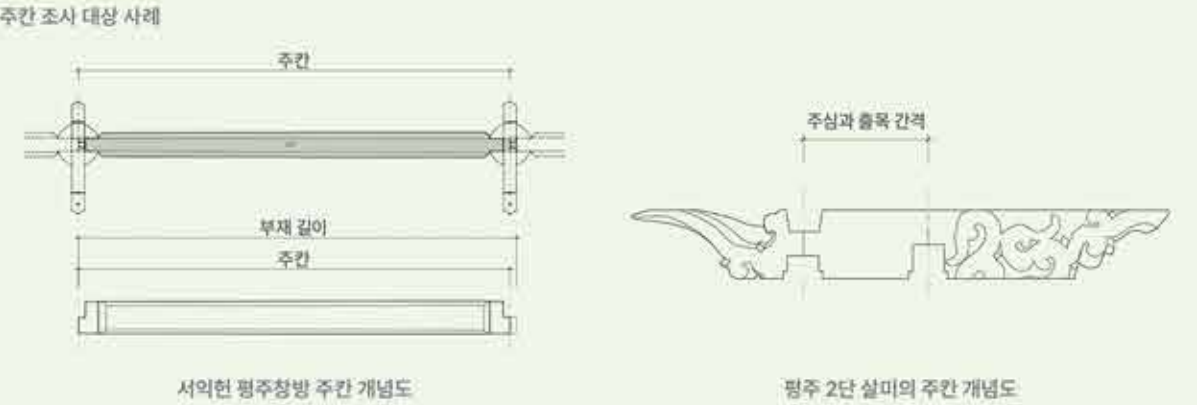
2. 주칸·기준높이 조사

해체 전·후 조사

해체 전·후 조사는 건물 조영 방식(주칸, 결구 등)과 변형 원인을 찾기 위한 것이다. 서악헌 보수현장에서는 수리이력 등의 문헌조사, 3D스캔 촬영·연륜연대 분석·평판재하시험 등의 다양한 과학적 조사와, 지붕트렌치·부재조사·정밀실측조사 등의 현장조사를 진행하였다. 이 가운데 부재조사는 조립과 직결되는 만큼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조사이다. 본 현장에서는 부재명·위치·연륜·치수·상태·보수방안 등의 공통조사항목과 주칸·기준높이값·곡·세부치수 등 일부 부재에만 해당되는 개별조사항목으로 나누어 부재를 조사함으로써 보수에 필요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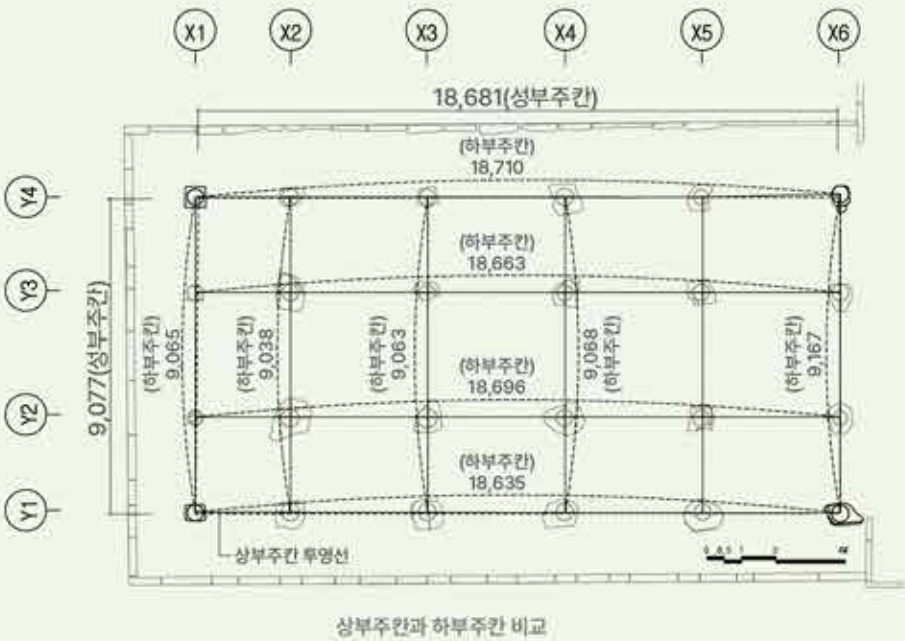
상부 주칸조사와 용척 추정

건물을 해체한 후 다시 조립하는 경우에는 주칸과 기준높이를 비롯하여 귀솟음·안솔림에 대해 면밀히 파악한 후 이를 보수공사에 적용해야 한다. 주칸은 기둥 상부와 하부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창방·뜬장여·장여·종량의 주칸과 2단 살미·귀침차와 같은 포부재의 주심·출목의 간격을 조사하여 상부주칸과 추정 용척(1자 = 306.0mm)을 도출하였다. 실제 주칸 적용에 있어서는 재사용 구부재의 길이 및 결구도 고려하였다.



하부주칸과 안솔림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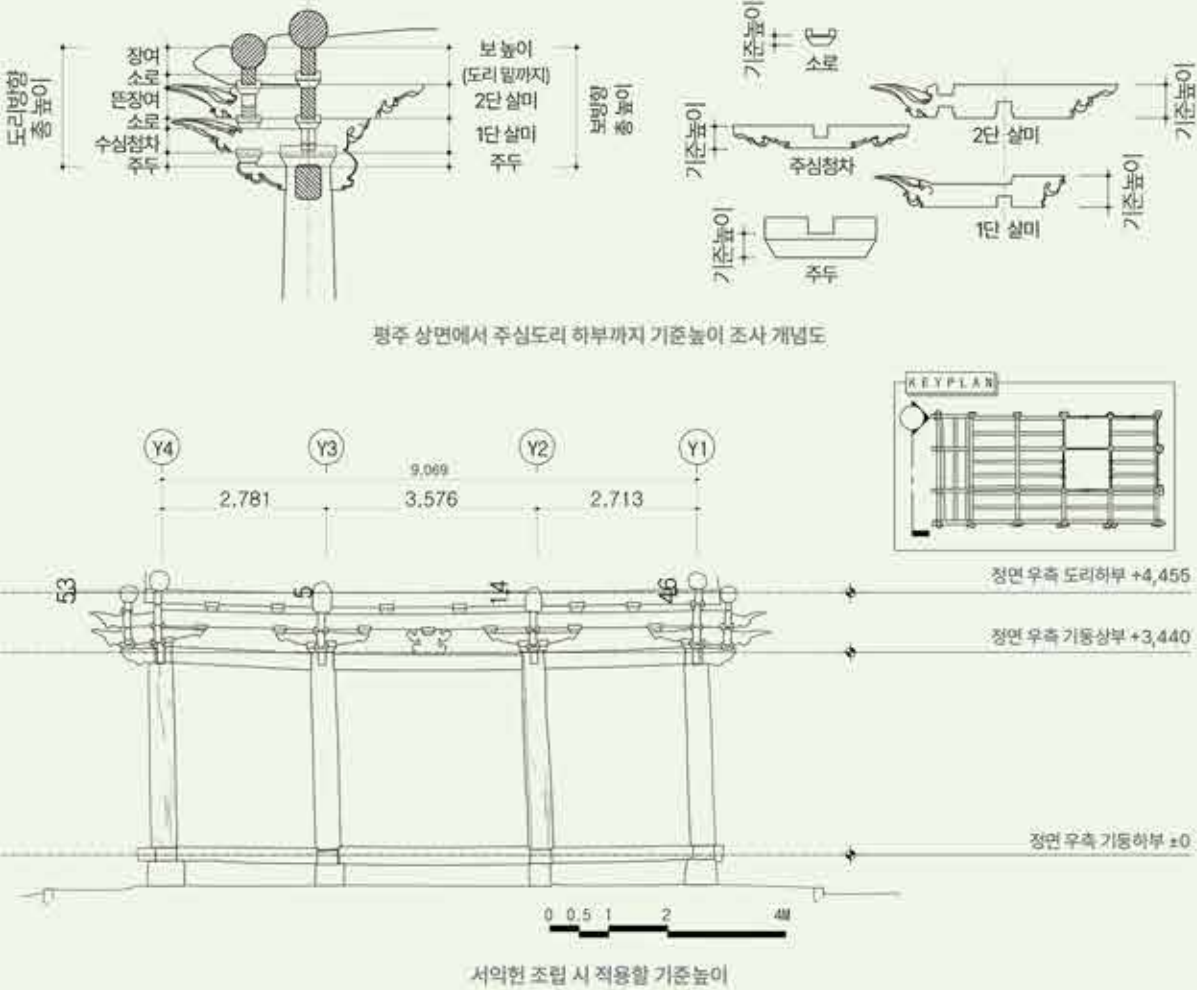
하부주칸 조사를 통해 안솔림 여부를 파악하였다. 조사 결과, 하부주칸의 합은 대체로 상부와 비슷하거나 짧은 것으로 조사되어 적어도 이전 현황에서는 안솔림이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급히 보수에서도 안솔림을 두지 않았다.



기준높이와 귀솟음

기준점·기준높이·귀솟음을 파악하기 위해 ①해체 전 평주 높이차 ②3D스캔을 토대로 작도한 입·단면도 ③해체 후 초석 높이값 +평주 길이 ④귀를 상부면에서 평주 상부까지 높이 등의 자료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기준점을 정청과 맞닿은 전면 우측 초석 상부로 정하였고, 이 점을 'H=±0'로 하여 평주 상부의 기준높이는 +3,448mm, 주심도리 하부의 기준높이는 +4,498mm, 중도리 하부의 기준높이는 +6,088mm가 됨을 파악하였다.

우주의 귀솟음은 대략 +60~70mm 내외로 조사되었으며, 우주에 연접한 기둥도 약간의 귀솟음이 있다는 것도 확인하였다. 우주의 경우, 실제 조립에서 좌측면 귀를 상부에 기둥을 얹은 후 확인한 귀솟음 값이 +66mm로 나옴에 따라 그대로 시공에 적용하였다. 우주에 연접한 기둥의 귀솟음 높이는 솟음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전·배면 기둥(X2열)은 +18mm, 좌측면 기둥(X1열)은 +30mm의 귀솟음을 주었다.



3. 주칸과 기준높이의 적용 사례

현장조사에서 파악한 주칸과 기준높이는 초석 위치확인, 초석 재설치 및 드잡이, 기둥 그레질, 교체 부재 치목, 부재 조립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주칸에서 벗어난 초석의 보수

주칸과 초석열을 비교한 결과, 일부 초석이 중심선을 벗어나 있음이 확인되었다. 좌측 전면의 장초석은 배면으로 약간 기울어져 중심선을 이탈한 것이므로 드잡이하여 중심선이 초석 중앙에 놓이도록 하였다. 좌측 배면의 장초석은 최근에 설치한 초석으로 중심선을 크게 벗어나 있어 재설치하였다.



주칸이 변형된 배면 좌측 창방의 보수

배면 좌측 창방의 결구부 현황을 보면, 한쪽 창방은 반턱주막장부의 '반턱' 부분을 짧은 주막장으로 만들고, 다른 쪽의 창방은 소매견이 부분을 더 깎아내어 주칸을 줄였다가(1차 변형) 현재의 모습처럼 결구도 없이 다시 벌려 조립한(2차 변형) 흔적이 있었다. 과거 수리 당시 좌측 기둥 2개만이라도 바로잡기 위해 취한 조치로 보인다.

배면 좌측 창방의 결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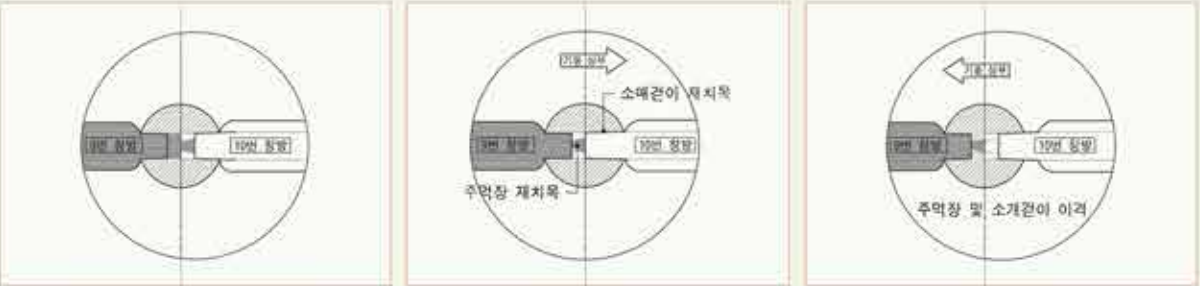


배면 좌측 창방 결구 현황  
주막장부가 짧아 결구가 안되는 모습

배면 좌측 창방(좌) 결구부 상세  
반턱 부분을 잘라내고 주막장을 새로 만들

배면 좌측 창방(우) 결구부 상세  
소매견이를 더한 부분에 단청이 있다.

배면 좌측 창방의 변형과정 개념도 (서술의 편의상 9·10번 창방으로 칭함)



변형 전

1차 변형 : 10번 창방이 좁아짐

2차 변형 : 변형 전과 주칸이 같아짐

문제는 주칸을 줄였을 때 함께 길이를 줄인 상부의 부재들 즉, 도리·장여·락장여 등이 주칸을 원래대로 다시 벌렸을 때 구조적인 보강 없이 나무토막을 덧대는 방식으로 길이를 맞추다 보니 결구부가 매우 취약해졌다는 점이다.

따라서 금회 보수에서는 주칸보다 길이가 짧거나 덧댐목을 붙인 도리·락장여·장여 중 최근 부재는 신재로 교체하였으며, 구부재는 수지처리·금속물보강 등을 통해 원래의 주칸에 맞게 길이를 보정한 후 재사용하였다. 창방의 경우, 변형된 결구부를 현재의 모습대로 조립하되 창방 상부에 락철을 박아 결구부를 보강하였다.

배면 좌측 창방 결구부 조립



변형된 최근 부재는 교체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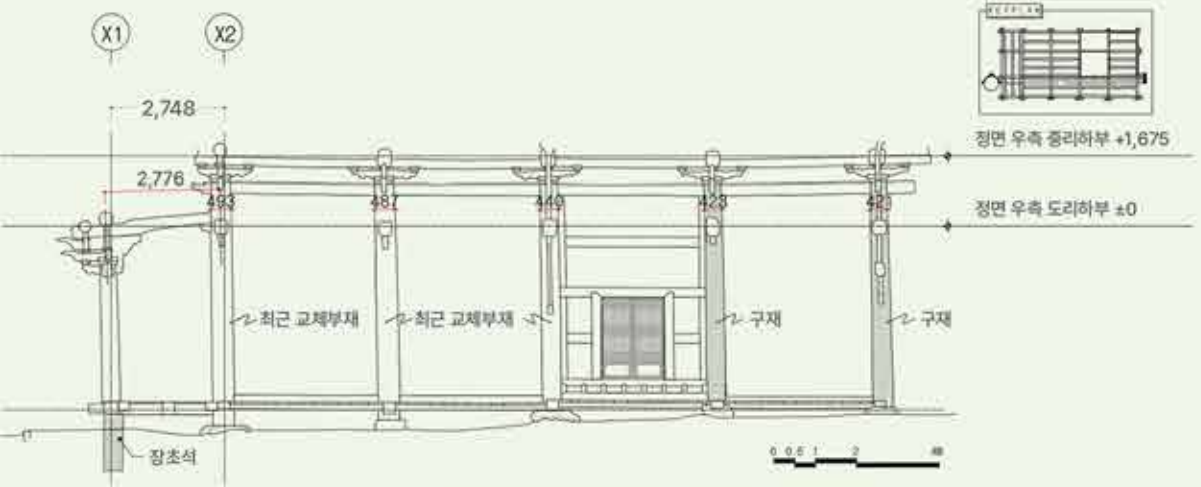
구부재는 금속을 보강 후 재사용함

구부재 길이보정(볼트보강)

창방 상부에 락철 보강

주칸이 맞지 않는 좌측면 퇴량의 보수방안

현황 실측 및 3D스캔 분석 결과, 좌측면 퇴량의 주칸이 기준주칸인 2,748mm보다 28mm가 길어서 그대로 조립할 경우 좌측면 기둥이 기울어져 설치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전 수리에서 구부재보다 지름이 약 60mm 더 굵은 고주로 교체함에 따라 여기에 결구된 퇴량칸의 주칸이 28mm 정도 증가하여 발생한 문제였다. 따라서 금회 보수에서는 퇴량과 결구되는 고주 홈 주변을 28mm 깎아내어 기준주칸을 맞춘 후 조립하였다.



3D스캔을 토대로 작성한 횡단면 현황실측도.  
퇴량의 주칸이 기준주칸보다 28mm가 길어 좌측면 기둥이 밖으로 기울어져 있다.

좌측면 퇴량 조립



중심선을 벗어난 좌측면 퇴량

고주의 결구부 치목 모습

고주 치목 후 좌측면 퇴량 조립

기준높이가 맞지 않는 기둥의 보수

기둥의 사개 상면은 창방 상면과 높이차가 있어서 짓눌리거나 파손된 주두가 많았다. 해체 전·후 조사를 통해 배면 좌측부에 침하가 있었고 기둥이 기울어졌음을 알 수 있었는데, 조립공사에 앞서 기둥을 가조립 해 보니 예상대로 초석과 그레질이 맞지 않았다. 따라서 조립 시 기둥의 높이 보정과 그레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기둥 그랭이 현황



기준 기둥 하부 그랭이 현황

그랭이 상태 확인을 위한 기둥 가조립

기둥 가조립 시 그랭이 현황



기둥 상부와 창방 상면의 높이차와 주두 변형 현황



서익현의 경우, 수차례 수리 과정을 거치면서 초석이 많이 높아진 상태였으므로 금회 보수에서는 기둥 하부를 수지와 목재를 덧댄 후 그레질하여 높이를 보정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이 방법은 기존 기둥과 일체화가 되어 구조적으로 매우 견고하며, 그레질로 훼손될 수 있는 기둥 길이를 보전해준다는 장점이 있다. 기둥 상부는 사개 상부와 창방 상부 높이가 같아지도록 사개 하부 쪽에 수지 등을 덧대어 높이를 맞추었다.



기둥 높이 보정 개념도

기둥 높이보정과 기둥세우기



기둥 하부에 '목재+수지접합' 최종안

기둥 상부 높이 보정(수지처리)

길이 보정한 기둥을 그레질하는 모습

4. 출목부 변형 원인과 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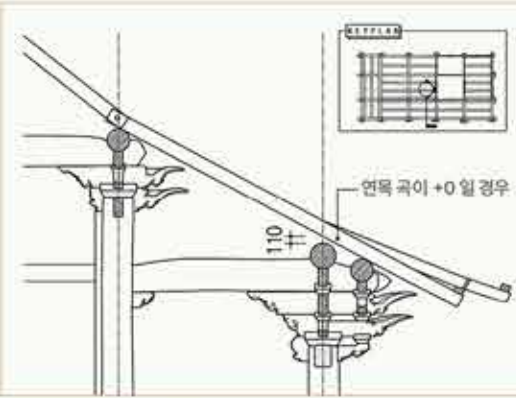
출목부 변형 원인

서익현 해체 전 현황을 보면, 주심도리가 아닌 외목도리에 지붕 하중이 집중되었기 때문에 포부재가 파손·변형되고 외부로 기울어져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은 부재조사에서도 드러났다. 해체한 기존 외목도리 대부분 연목자리에 홈이 깊게 파여 있다. 장연이 주심도리보다 외목도리에 먼저 닿기 때문에 외목도리 위를 깊게 파낸 것이다. 그럼에도 외목도리에 지붕 하중이 많이 실려 외부 쪽 포부재가 내려앉거나 파손되었다.



해체 전 평주 공포 및 외목도리 현황

장연이 외목도리에 먼저 닿는 것은, 당초에는 곡재 장연을 설치하기 위해 중도리·주심도리·외목도리로 이어지는 경사면에서 주심도리 높이를 낮게 계획하였으나, 후대 수리과정에서 직재 장연을 주로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장연이 외목도리에 먼저 닿게 되면서 출목도리의 훼손이 증가하고 평고대선도 낮아졌다. 실제 중도리까지 조립한 후 직재인 장연(곡 $\pm$ 0mm)으로 가조립을 해보니 장연이 외목도리에 먼저 닿아 주심도리 위에서는 약 110mm의 이격이 발생하였다.



서익현 출목부 가구 개념도



직재 장연 설치 시 주심도리에서 이격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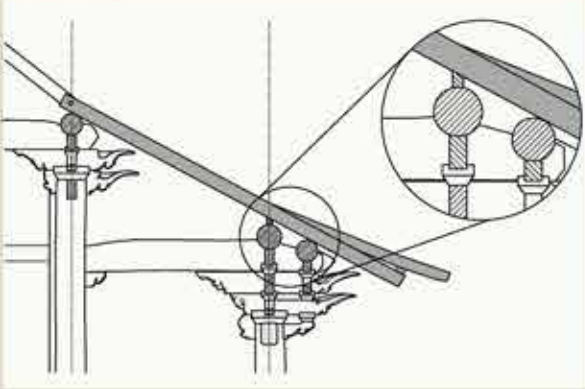
출목부 보수

출목부 보수는 첫째, 주심도리 상부면에 높이 120mm의 덧댄목을 설치하여 장연 설치 시 주심도리 상에서 하중을 받도록 하였다. 곡이 없는 직재의 장연은 덧댄목 위에 그대로 설치하고, 곡이 있는 장연은 곡에 맞춰 덧댄목을 깎아내어 설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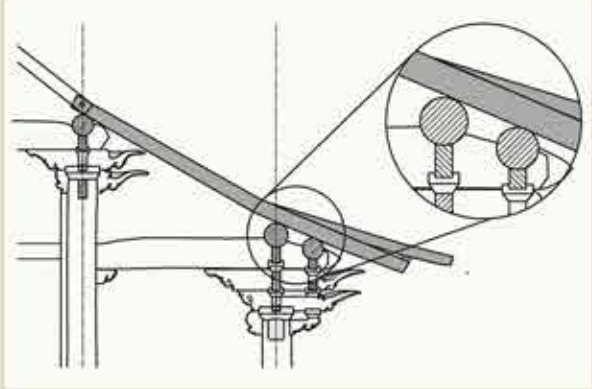
둘째, 추녀의 강다리, 장·단연의 연침구멍, 우측박공의 이매기 구멍 등 내밀기 길이를 알려주는 결구 흔적이 부재에 남아있었기 때문에 안하리의 최단지점과 양곡의 최저점 조사가 가능하였으므로 이를 통해 초매기선을 확정하였다.

셋째, 조사한 '장연 곡꺾'과 '장연 설치 길이'에 근거하여 장연을 재배열하였으며, 교체 부재도 필요한 장연 곡과 장연 설치 길이에 맞게 곡재로 치목하여 설치하였다.

장연 설치 개념도



최근 부재(직재): 덧댄목을 설치하여 주심도리에 하중 전달



구부재(곡재): 곡을 활용하여 주심도리에 닿도록 설치

장연 곡과 장연 설치 길이



2) '장연 곡'은 장연을 중도리·주심도리에 얹었을 때, 평고대 설치 위치에서의 상·하 곡을 측정한 것을 말한다.  
3) '장연 설치 길이'는 장연 상부 연침의 중심에서 단부의 평고대 설치 위치까지의 길이를 말한다.





장연 곡에 맞춰 덧댈목을 깎아내는 모습

연침 위치에 맞춰 장연 가조립

연침구멍이 맞지 않는 단연의 보수

연침구멍이 있는 구부재 단연을 현황 순서대로 가조립을 해보았더니 구멍 열이 맞지 않았다. 이는 연침간 길이 차이나 중·종도리의 부재 크기 차이 등 세부적인 치수 차이가 그 원인이었으므로 '중도리-종도리간 거리'를 별도로 조사하여 '상하 연침간 길이'가 비슷한 단연을 찾아 재배열하였다. 단연 재배열 후 연침을 설치하였으며, 제작한 연정을 박아 장연과 단연을 고정하였다.



단연을 현황 위치대로 가조립한 모습 연침구멍이 서로 맞지 않았다.

장·단연 재배열 후 연침 설치

5. 부재 결구부 이완과 보강

포부재 결구부 보강

포부재의 변형은 매우 심한 상태였는데, 변형의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편하중으로 인해 기울거나 휨 부재가 많으며, 짓눌림이 심한 부재도 상당수 있다. 둘째, 첨차·살미의 기준높이와 용척이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구부재 간에도 용척이 서로 달랐다. 셋째, 소로 높이가 서로 맞지 않았다. 넷째 최근에 교체한 포부재나 소로에 축이음이 없었다.

포부재에 대한 보수는 첫째, 축이음이 없는 최근 부재에 측구멍을 만들어 축이음을 하였다. 둘째, 수지처리 방법을 활용하여 포부재의 높이·수평 뒤틀림·수직 뒤틀림·짓눌림 등을 보정한 후 조립하였다. 셋째, 소로 갈바닥 높이를 확인하여 보정한 후 소로를 설치하였다. 장어나 포부재는 처짐·뒤틀림 등으로 변형된 부재가 많아서 소로 높이가 맞지 않으면 하부의 첨차가 부러질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최근 부재 측구멍 파기

파련대공 수평보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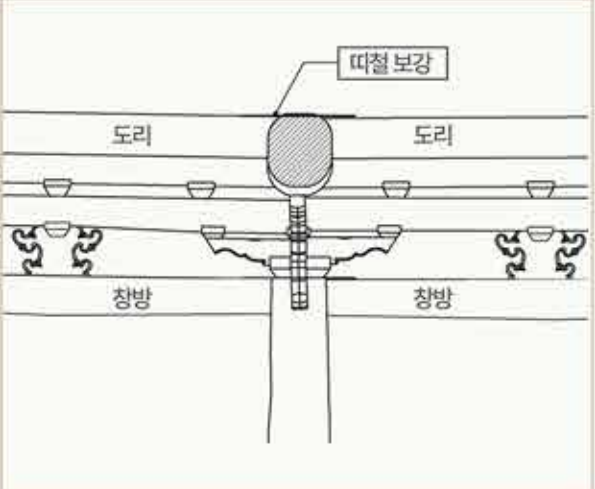
조립 시 소로 높이 확인 과정

구조재 결구부 보강

이완·이탈이 심한 서익현의 도리·뜯장여·창방 결구부는 띠철로 연결부위를 보강하였다. 띠철 보강의 위치는 창방 상부와 도리 상부이다. 그 이유는 포부재의 위·아래로 결구부를 보강함으로써 포부재의 이완·변형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고주와 대랑, 고주와 퇴랑의 결구부는 이완될 우려가 크므로 산지이음으로 결구한 뒤 'L'자 띠철로 보강하였다. 그리고 사개 등 갈램이 심한 기둥은 수지처리 후 띠철을 감아 보강하였다.

창방·도리 결구부 띠철 보강



띠철 보강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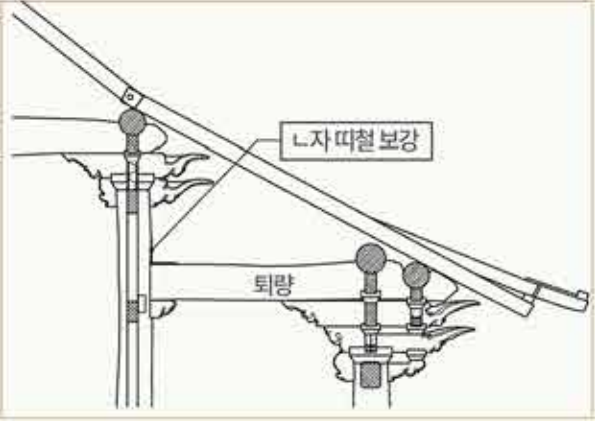


도리 결구 현황

도리 띠철 보강

창방 결구 현황

창방 띠철 보강



기둥과 대랑·퇴랑부 'L'자 띠철 보강



기둥 띠철 감기



## 6. 마치며

풍패지관 서익헌 보수공사에서는 해체 전·후 조사를 통해 건물의 조영 방식과 변형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적용한 것이 공사의 주된 흐름이다. 문화재 수리공사는 문화재 본래의 양식과 기법을 활용하여 문화재의 원형이 변형·왜곡되지 않도록 본래의 원형과 가치를 최대한 보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충실한 해체 전·후 조사는 상기와 같은 문화재 수리의 기본 목적을 달성하는 데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서익헌 전경 (보수 후)



서익헌 정면 (보수 후)



서익헌 배면 (보수 후)



서익헌 좌측면 (보수 후)



서익헌 내부 (보수 후)

문화유산명 | 이숙기 좌리공신교서

지정명 | 보물

사실명 | 이숙기 좌리공신교서 보존처리

조성연대 | 1472년(성종3년)

위치/소재지 | 경상북도 김천시 구성면 상원리

소유자 | 연안이씨 정양공파 대종회

## 이숙기 좌리공신교서 보존처리

(주)송백보존테크/문화재수리기술자(보존과학 제1281호) | 하준경

「이숙기 좌리공신교서 보존처리」는 (주)송백보존테크에서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약 1년 동안 진행한 사업으로 보존처리 과정과 소실된 부분의 복원 과정을 통해 교서의 원형을 회복하였다.

교서 발급 당시 원형에 대한 고증을 위해 인문학적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과학적 조사를 토대로 교서에 사용된 원재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복원재료를 선정하였고, 보존처리 원칙에 입각해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숙기 좌리공신교서」는 성종 3년(1472) 정양공 이숙기가 받은 순성좌리공신(純誠佐理功臣) 녹권(錄券)으로 성종대에 공을 세운 75명 신민에게 내린 공신호이다. 이 교서는 성종 추대와 관련된 정치적 동향과 참여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원천 자료이자, 15세기 후반 공신교서의 형태적 특징, 서체와 제작방식 및 장황 등을 연구하는 데 있어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이숙기 좌리공신교서-보존처리 전



이숙기 좌리공신교서-보존처리 후

「이숙기 좌리공신교서」의 인문학적 조사를 통해 조선시대 교서 발급 제도 및 과정, 교서의 구성과 내용, 장황(粧潢)<sup>1)</sup>의 형식, 개조(改造) 여부를 확인하였다.<sup>2)</sup> 해체와 보존처리 과정 중 교서를 구성하는 서본(書本)과 변아(邊兒), 상회장(上回裝)과 하회장(下回裝)이 후대에 수리되고 개조된 것을 확인하였다. 「이숙기 좌리공신교서」의 제작 당시 장황 형태 등 그 원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조선시대에 발급된 공신교서의 발급 현황과 장황의 변화 시기, 현전하는 좌리공신교서들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이었다. 이에 현전하는 교서 중 그 원형이 남아있거나 보존처리된 교서에서 장황의 형태 등을 참고할 수 있는 유물을 조사하였다. 「이숙기 좌리공신교서」(1472)보다 5년 앞선 시기인 1467년(세조13)에 발급된 「손소 적개공신교서」와 「정종 적개공신교서」를 열람하여 장황의 형태를 조사하였다.<sup>3)</sup>

1) 서화를 족자·병풍·두루마리·책·첩 등의 형태로 꾸미는 표지 장식.

2) 국립고궁박물관, 2008, 「부록」, 「무림과 깃중의 예술, 장황」, 국립고궁박물관, 230p 도면 참고.

3) 「손소 적개공신교서」,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보관. 「정종 적개공신교서」, 대가이박물관 보관.



인문학적 조사 결과 <sup>4)</sup>

배면 좌측 창방의 결구부 현황을 보면, 한쪽 창방은 반턱주먹장부의 '반턱' 부분을 짧은 주먹장으로 만들고, 다른 쪽의 창방은 소매견이 부분을 더 깎아내어 주칸을 줄였다가(1차 변형) 현재의 모습처럼 결구도 없이 다시 벌려 조립한(2차 변형) 흔적이 있었다. 과거 수리 당시 좌측 기둥 2개만이라도 바로잡기 위해 취한 조치로 보인다.

조선시대 공신교서 발급 현황

- 공신 책봉 때 반사된 공신교서 950여 점
- 현전 공신교서 73점(대부분 임란 이후 발급본)

조선시대 공신교서 장황의 변화 시기

- 제1기(개국~좌명공신 : 1392~1401) → 공신교서 형식 확립 이전 시기
- 제2기(정난~좌리공신 : 1455~1472) → 공신교서 형식 확립시기
- 제3기(정국~영국공신 : 1507~1646) → 중종대 공신교서와 삭훈된 위사공신교서 호합한 선조, 광해군, 인조대 공신교서
- 제4기(보사~분무(양무)공신) : 1680~1728) → 숙종, 영조대 공신교서

조선시대 적개공신교서 현전본 참고 / 조선시대 좌리공신교서 현전본 제외

- 손소적개공신교서(1467), 정종적개공신교서(1467)
- 제작 당시 원형을 보존하고 있어 장황 연구에 참고
- 이송원 좌리공신교서(1472), 김길통 좌리공신교서(1472)
- 원형이 아닌 개장된 형태로 조사에서 제외

『이숙기 좌리공신교서』는 장황 변화 시기 구분에서 제2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원형을 추정할 수 있었다. 앞서 조사한 적개공신교서들과 달리 중앙좌/우회장과 상철목, 대화, 첨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고, 서본과 변아의 연결 방식이 다를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후대에 개조(改造)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조선시대 공신교서 변아 연결 방식은 서본과 변아 부분이 같은 선상에 맞대어 변아를 접어 서본 뒷면에서 연결하는 방식이다. 개조된 것으로 추정되었던 『이숙기 좌리공신교서』는 서본을 변아로 덮어 감싸는 방식으로 근·현대 표구 변아 연결 방식이 적용되어 있었다.

보존처리 과정 중 변아와 회장에서 개조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배접지로 사용된 종이 중 일부가 1,556년 작성된 편지 내용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교서의 수리 및 개조는 명백히 밝혀졌으며, 과학적 조사/분석의 결과도 이를 뒷받침하였다.

서본과 변아의 연결 방식 <sup>4)</sup>



- 1차 배접 후 장황 각 부분을 연결할 때 서본과 변아를 연결하는 방식에서 현재 표구방식과 다른 공신교서의 특징이 관찰.
- 근·현대표구 : 서본을 변아로 덮어 감싸는 방식
- 공신교서 : 서본과 변아 부분이 같은 선상에 맞대어 변아를 접어 서본 뒷면에서 연결하는 방식

4) 김나형, 『조선시대 공신교서 장황 연구』, 용인대학교 예술대학원, p2, p31~34 참조.  
5) 김나형, 『조선시대 공신교서 장황 연구』, 용인대학교 예술대학원, p1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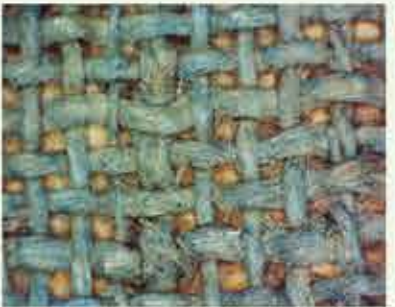
과학적 조사·분석 결과

『이숙기 좌리공신교서』의 지류·직물섬유소 분석을 진행한 결과 배접지는 닥나무 섬유가 주성분인 섬유소로 전통 한지로 확인되었으며, 후대 개조된 것으로 추정되었던 상·하회장, 변아(개조)는 모두 '마섬유'로 확인되었다. 교서 발급 당시 제작된 기존 상·하회장, 중앙좌·우회장, 변아(기존)는 모두 '견섬유'였음이 밝혀졌다. 개조될 당시 기존 견섬유로 제작된 상·하회장과 중앙좌·우회장 위에 마섬유로 제작된 상·하회장으로 덮어 개조한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서본에 충해 등으로 인한 구멍들이 존재하는데, 후대에 가필한 흔적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타 묵서흔 등의 흔적을 확인하기 위해 적외선 촬영을 진행하였으며, 서본 배접지 일부에서 다수의 가필흔을 확인하였다.



서본(바탕지)\_150X



상/하회장(개조)-마섬유



변아(개조)-마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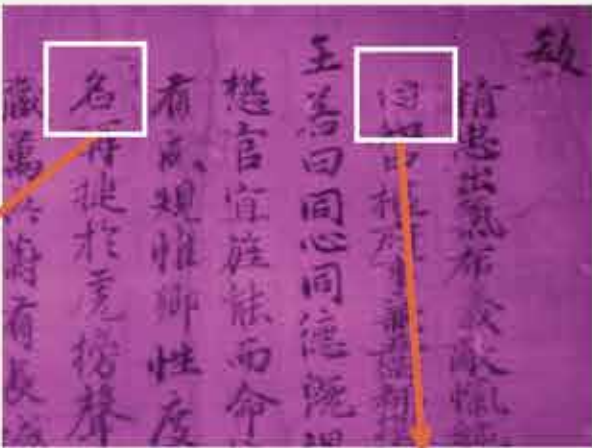
변아 비교(개조-기존)



상/하회장(기존)-견섬유



변아(기존)-견섬유



배접지 분리 후 가필 위치를 재확인



이후 보존처리 과정 중 배접지 분리 후 서본의 가필 위치와 2차 배접지의 가필 위치를 대조 확인하였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 서본의 초배지는 교서 발급 당시 배접한 것으로 보이며, 이후 후손들에 의해 교서가 수리, 개조된 시점에 2차 배접지를 집안에서 소장하던 문서를 사용해 배접했다는 점이다.

개조된 하회장의 배접지 문서와 서본의 배접지에서 확인된 문서는 하나의 문서로 '가정 35년(1556) 12월 18일 충의위 이순경'이 웃어른께 보낸 안부 편지로 확인되었다. 이로써 후대 개조된 시기가 편지에 작성된 시기인 1,556년 이후 교서의 수리 및 개조가 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서본에 배접된 2차 배접지 문서



한 문서로 확인된 문서 내용은 안부 편지



개조된 상회장 배접지 문서

嘉(가)	下(하)	安(안)		
靖(정)	鑑(감)	伏(복)	謹(근)	
三(삼)	敦(교)	惟(유)	伏(복)	
十(십)	事(사)		問(문)	
五(오)				忠(충)
年(년)				義(의)
十(십)				衛(위)
二(이)				李(이)
月(월)				純(순)
十(십)				敬(경)
八(팔)				純(순)-수결
日(일)				敬(경)-수결

합본된 문서의 내용

하회묵은 부후가 심하고 휘어져 재사용이 불가하였다. 수종분석 결과 하회묵은 육송으로 제작되었고, 마기 부분은 버드나무로 제작해 옷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동일한 규격으로 새로 제작하여 마무리하였다.



하회묵, 마기\_신규/기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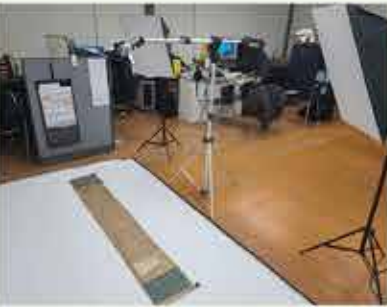
하회묵(소나무류 칠단면)



마기(버드나무속 칠단면)

보존처리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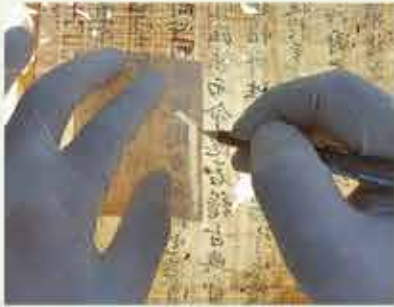
① 유물이동	»	④ 사전조사 및 촬영	»	⑦ 문서 안정화 작업	
»	② 건/습식 세척	»	⑤ 해체	»	⑧ 표집 및 구배접지 제거
»	③ 결손부 메움	»	⑥ 배접(1/2차)	»	⑨ 표장제작
»	⑩ 표장비단 보존처리	»	⑪ 염색 및 배접	»	⑫ 띠보강
»	⑬ 연결작업	»	⑭ 다회/침 제작	»	⑮ 배접(3차)
»	⑯ 굵게말이죽 제작 및 부착	»	⑰ 보관상자 제작	»	⑱ 훈증소독



현황 촬영(전체/세부)



상회장 분리-개조된 회장



결손부 메움



변아-서본 연결



변아-서본 연결



보관함(오동나무)



보존처리 작업

개조된 회장과 변아 등을 해체하고, 메움작업과 표장 보존처리를 통해 교서의 구성 부분들을 개별적으로 제작, 수리를 진행하였다. 메움재와 회장에 사용되는 직물은 기존 직물과의 울수, 규격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이질감이 없는 명주를 전통방식으로 제작/적용하였다.

‘하횡목’은 수증분석, 재료 선정, 제작 과정을 통해 기존 형태와 규격 등을 미리 검증하고, 상횡목은 ‘손소 적개공신교’에 사용된 표죽을 확인하여, 대나무로 제작하였다.

‘다회’는 생사를 정련하고 쪽으로 염색하여, 장시간 자연 열화를 통해 탈색한 뒤 회장의 색상과 비교하여 완성하였다.

‘참’은 전문가 회의를 통해 우각(물소뿔)으로 제작해 다회와 연결하여 교서의 구성을 마무리하였다.

복원 과정 및 마무리

교서에 사용된 명주와 유사한 손명주를 구하기 위해 경주시에 위치한 전통명주전시관을 찾았다. 손명주 생산마을로 아직도 전통 명주를 제작하는 몇 안되는 곳으로, 교서에 남아있는 기존 장황 비단과 유사한 울수, 조직감을 비교하여 복원 재료로 선택하였다.

다회의 제작을 위해 ‘손소 적개공신교서’에 남아있는 다회의 짜임과 규격을 조사하고, ‘안동권씨족도 보존처리’ 중 다회 복원에 참여하였던 다회 명장에게 제작을 의뢰하였다.

복원된 장황 비단과 다회, 참, 상/하횡목을 기존 교서에 부착하고, 오동나무상자에 보관하여 본 공사를 마무리하였다.



다회 제작



다회 제작



하횡목/상횡목/참 제작

보존처리 전 후 비교



보존처리 전 후 비교



처리 전



개조된 회장과 배접지 분리 후



처리 후



완료

후기

문화재수리업에서 진행되는 보존처리공사는 처리 대상의 재료가 매우 다양하고 여러 가지 물성이 복합된 재질을 주로 다루게 된다. 특히 동산문화재는 유무기 복합재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며, 이에 대한 사전조사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인문학적 조사를 통한 원형의 고증과 사료적 판단의 근거를 찾았다면, 과학적 조사/분석은 유물의 상태에 대한 객관적 기초자료를 제시하고 해석하여, 인문학적 판단에 대한 객관적 근거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이숙기 좌리공신교서 보존처리’를 통해 현장대리인의 역할과 주요 업무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현장대리인은 시공자, 연구자, 설계자 또는 감리자의 역할을 늘 생각하며 시공에 임해야 할 것이다. 보존처리공사가 단일공정이 아닌 복합적인 공정 의 연속이며 이에 대한 관계전문가, 기술자, 기능자의 협의·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글을 마치며, 늘 공부의 연속이고 늘 어려움의 연속인 이 문화재수리업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다른 방식으로 보기  
Ways of Seeing

형식주의적 미술사학의 틀에서 벗어난, 다방면의 새로운 연구

존 버거의 《다른 방식으로 보기》는 1972년 초판 발행 이후 지금까지 가장 영향력 있고 대중적인 책으로 자리매김한 대표적인 미술비평서다. 영국 BBC 텔레비전에서 시리즈물로 방영한 프로그램을 기초로 한 책으로 영상과 이미지 언어, 예술작품에 나타난 여성의 이미지, 유럽 전통 유화와 사유재산의 관계, 광고 이미지와 소비문화 등 서구 전통의 미적 기준을 탈피해 이미지 이면에 숨은 이데올로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미술평론가 존 버거의 이러한 주장과 논의들은 소략하고 단정적인 발언들로 이어져 있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 그러나 기존의 미술사 논의와는 전혀 다른 방식의 획기적인 문제 제기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미술사와 미술비평의 새로운 담론적 차원을 여는 하나의 출발점이 된 이 책은 시각 문화 연구의 새로운 차원을 선구적으로 전개한 지적 촉매로서의 역할이 돋보이는 역작이다.

글: 존 버거(역자: 최반)  
출판: 열화당  
발행일: 2019년 6월 1일  
가격: 14,000원



산수간에 집을 짓고  
임원경제지에 담긴 옛사람의 집짓는 법

집에 관한 상상과 설계, 주거공간의 실상을 파헤친 서유구의 주거미학

집이라는 인간의 거주 공간이 지닌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선인들은 집 자체에 대해 말하기를 즐겨하지 않았다. 예외적으로 집 자체를 논의 산상에 올려놓고 파고든 사람이 서유구이다. 그가 쓴 책 《임원경제지》에는 집에 관한 상상과 설계, 당시 주거 공간의 실상을 파헤친 보고와 탐구, 주거물의 개량과 선진 공법의 도입, 조형예술로서의 집에 대한 미학의 제시 등 예상을 뛰어넘는 내용이 풍성하게 펼쳐져 있다.

이 책에는 18세기 후반에서부터 19세기 전반기에 이르는 시기에 최고 수준의 지적이고 세련된 사람이 생각하는 주거문화가 담겨 있다. 당시 서울과 지방의 대도회자 사람들은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주택문화와 정원 조성, 새로운 주거 형태에 열의를 보였다. 서유구는 이런 주거에 대한 당시 욕구를 반영하여 자연 친화적이면서 편리한 삶을 위한 주거 공간, 전통적 풍수의 적용과 독립, 새로운 기술의 도입과 개발을 논한다.

글: 서유구(역은이: 안대희)  
출판: 돌베개  
발행일: 2005년 7월 25일  
가격: 20,000원



문화유산 서가

문화유산의  
근대와 탈근대

문화유산, 문화적 정체성의 표상인가? 문화소비 시장의 상품인가?

정수진 교수의 연구 관심은 무형문화재에서 유형문화재로 확대됐고, 연구 대상의 시공간 역시 '지금 여기'로 확장됐다. 개인적인 관심사의 변화라기보다는 문화유산을 둘러싸고 급세기 펼쳐진 정치·사회적 지각 변동의 징후들을 추적한 결과다. 《문화유산의 근대와 탈근대》는 이런 연구의 성과들을 매만져 우리나라의 유·무형 문화재 제도를 비판적으로 고찰한 책이다.

이 책은 문화유산의 근대와 문화유산의 탈근대, 두 파트로 구분해 문화재 제도를 설명한다. 1부 '문화유산의 근대' 파트에서는 일제 강점기부터 현재까지 문화유산에 대한 오랜 사유 방식이 자명하게 통용·재생산되는 상황과 국면을 비판적으로 고찰했고, 2부 '문화유산의 탈근대'에서는 유네스코 체제와 함께 기존 사유 방식의 작동 오류, 모순과 이탈의 현장을 천착했다. 뿐만 아니라 무형문화재에서 언급되는 '전통'의 개념, 한국과 일본 무형문화재 제도와 함방에 대해 논하고 있다.

저자: 정수진  
출판: 민속원  
발행일: 2021년 3월 15일  
가격: 32,000원



풍경의 깊이  
강요배 예술 산문

한국 현대미술의 거장, 강요배의 삶과 예술을 응축한 첫 산문집

《풍경의 깊이》에는 화가 강요배가 사람·역사·자연을 직면하는 뜨거운 마음, 그가 지닌 오랜 연륜의 흔적, 예술을 향한 깊은 사유의 향이 짙게 배어 있다. 그가 그려온 2,000여 점의 그림과 작품을 표현한 수많은 말과 글 가운데 그 요체를 전할 수 있는 부분을 응축한 책이다. 강요배의 정수를 담은 이 책이 품은 그윽한 향기가 독자에게도 전해지길 바란다.

『풍경의 깊이』는 강요배가 지닌 마음의 풍경, 즉 "세계 속에서 중심을 찾아보려 인간힘을 쓰는 한 존재의 마음 궤적"을 따라가면서 이 땅에 새겨진 시간과 우리가 머무르는 자연을 음미하게 만든다. 이 책은 자연과 역사, 민중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오랫동안 삶과 세계를 응시하며 강렬한 필치로 미적 영감을 표현해 온 그의 예술 세계를 보여 주는 글 모음이자 그림 모음이며, 사유의 모음이다.

글: 강요배  
출판: 돌베개  
발행일: 2020년 9월 11일  
가격: 38,000원





## 수원화성 둘레길

위치: 경기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320-2

관람시간

- 하절기(3월~10월) 09:00 ~ 18:00

- 동절기(11월~2월) 09:00 ~ 17:00

## Part. 09

# 문화유산 산책



### • 수원화성 둘레길 산책코스 | 1시간 코스

경로A: 화성행궁-화령전

경로B: 사창대-화서문-장안문

경로C: 연무대-방화수류정-장안문

수원 여행의 일부 코스로 화성 둘레길을 방문하고 싶다면, 가장 짧은 핵심 경로를 추천한다. 1시간 내외로 둘러볼 수 있는 수원화성 둘레길 A경로는 정조의 어진(왕의 초상화)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던 화령전(華寧殿)을 감상할 수 있다. 화령전은 당대 최고의 기술자가 참여해 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완성된 곳으로, 정전인 운한각과 이안청 복도관은 창건 당시의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 2019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수원 화성의 북문이자 정문인 B·C코스의 장안문(長安門)은 수원 시기 중심부에 위치한 수원의 상징이다. 위풍당당한 홍예문의 2층 누각과 장엄한 자태의 둥근 용성을 갖췄다.

### 관람 TIP.

오디오가이드: 한국관광공사가 제공하는 '오디(Odi)' 앱 설치 후, 수원화성과 화성행궁의 오디오가이드 이용 가능

## 빛-다른 운치, 수원화성 둘레길

수원 시가지에 우뚝 선 독보적인 존재감. 세계 최초의 계획 신도시 수원화성(水原華城, Hwaseong Fortress)은 조선왕조 제22대 정조대왕이 양주 배봉산에서 수원 화산(花山/華山)으로 사도세자의 능침을 이장하며 팔달산 아래 축조한 화성이다.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뒤주에서 생을 마감한 아버지를 향한 효심을 근본으로 당파정치의 근절, 강력한 왕도정치의 실현을 위한 포부를 담아 탄생했다. 실학의 집대성자 장악옹이 주창한 《성화주략(1793)》을 지침서로 삼아 1794년 1월 착공을 시작했고 약 2년 6개월 만에 완공에 이르렀다. 특수 고안한 거중기, 녹로 등 신기재를 사용한 정교한 석축술을 구현해 축성 기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수원화성은 팔달문(보물 제402호), 화서문(보물 제403호), 장안문, 서북공심돈(보물 제1710호), 방화수류정(보물 제1709호) 등의 소장 문화재를 포함하며 대한민국 사적 제3호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으며 성곽의 일부가 파손·손실되었지만, 축성 직후 발간된 《화성성역의궤》에 의거하여 보수·복원사업(1975)을 시작했고 199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 복원을 또는 최근 건축물의 등재는 매우 드문 경우지만, 기록된 설계도와 건축 방법을 원형에 가깝게 복원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으로 등록을 인정받았다. 그저 길을 따라 걷는 것만으로도 축조의 예술성과 아름다운 경관을 만끽할 수 있는 수원의 명소. 수원화성에는 약 5.7km의 성곽을 따라 고즈넉한 둘레길이 조성되어 있다. 수원 시내의 과거와 현재를 한눈에 아우르며 이곳을 찾는 이들에게 빛다른 운치를 전하고 있다.



※ 수원화성은 개방형이며 야간 관람 가능

입장료: 무료  
홈페이지: [www.swcf.or.kr](http://www.swcf.or.kr)  
문의: 수원문화재단 031-290-3600

• 4대문

동창룡문 / 서화서문 / 남팔달문 / 북장안문 수원화성을 출입하는 4개의 관문으로 중앙안문이 정문이며, 남으로 창룡문, 화서문, 팔달문이 있다.

• 화홍문(북수문) / 남수문

수원화성을 가로질러 흐르는 수원천의 북쪽과 남쪽에 세워진 2개의 수문. 화홍문과 인근의 방화수류정과 웅연은 뛰어난 건축미로 수원화성에서 손꼽히는 절경을 이룬다.

• 장대

동장대(연무대) / 서장대(화성장대) 장대는 군사 지휘소로 수원화성은 서장대와 동장대가 있다. 두 곳 모두 사방이 탁 트여 수원 시내를 조망하기에 좋은 장소다.



• 수원화성 둘레길 산책코스 | 2시간 코스

경로A: 팔달문-서삼각루-서장대-화서문-장안문  
경로B: 동장대(연무대)-방화수류정-장안문-화성행궁  
경로C: 장안문-화서문-서장대-화성행궁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팔달문은 물론 규모와 기능면에서 비교불가한 화성행궁(華城行宮)이 있는 2시간 코스가 어떨까. '대장금', '왕의 남자', '구르미 그린 달빛' 등 인기라 방영된 영화와 드라마의 배경으로 알려진 화성행궁은 과거 수원부 관아로 사용하다가 정조대왕 행차 시 왕의 거처이자 진찬연을 거행한 곳이다. 장안문과 화서문을 경유하는 서장대(西將臺)는 수원화성에서 가장 높은 팔달산 정상에 위치했다. 성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수원화성의 총지휘본부로 정조의 필체로 남긴 '화성장대(華城將臺)' 편액을 감상할 수 있다.

관람 TIP.

국궁체험: 연무대에서 펼쳐지는 전통 활쏘기 체험(문의: 국궁체험장 031-252-4676)

※ 플라잉수원:  
[www.flyingsuwon.com](http://www.flyingsuwon.com)



• 수원화성 둘레길 산책코스 | 3시간 코스

경로A: 화성행궁-서장대-화서문-장안문-방화수류정-창룡문-봉돈-재래시장  
경로B: 팔달문-서장대-화서문-장안문-방화수류정-창룡문-봉돈-재래시장  
직장하고 수원화성 둘레길을 방문했다면, 가장 긴 3시간 코스에 대한 예습이 필요하다. 방화수류정(訪花隨柳亭)은 화홍문의 동쪽 높은 바랑 위에 세워진 정자다. 한국의 미감을 마음껏 드러내는 이곳은 정교하기 이를 데 없는 건축물이다. 중국 송나라 때 학자이자 시인인 정명도의 시 '운담풍경근오전 방화수류과전천(雲淡風景近午天 訪花隨柳過前川, 구름 개어 맑은 바람 부는 한낮 꽃 찾아 나선 길/버드나무 따라 앞 개울가를 지나)'에서 비롯한 '동북각루'라는 이름으로 함께 불린다. 조망 위치에 따라 각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독특한 평면과 지붕의 형태는 다른 성곽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창적인 건축으로 평가 받는다.

관람 TIP.

플라잉수원: 계류식 헬륨기구에 탑승해 수원화성의 전경을 감상할 수 있는 이색 관광 프로그램



2023년 상반기 문화재분야임금

법적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제365004호)  
조사기관 : 대한건설협회

번호	직종명	2023.1.1.	2022.9.1	2022.1.1.	2021.9.1
*3001	도편수	457,123	477,025	-	-
**3002	드잡이공	-	280,702	-	281,481
**3003	한식목공	-	279,380	271,227	247,685
**3004	한식목공조공	-	209,937	-	-
3005	한식석공	368,240	322,748	322,914	330,000
**3006	한식미장공	-	286,134	278,417	262,880
*3007	한식와공	322,581	298,868	293,446	-
**3008	한식와공조공	-	245,275	250,000	-
**3009	목조각공	-	-	-	-
**3010	석조각공	-	-	-	-
**3011	특수화공	-	285,714	-	300,000
**3012	화공	-	252,000	261,905	269,504
**3013	드잡이공편수	-	-	-	-
*3014	한식미장공편수	325,333	-	298,667	269,504
**3015	한식와공편수	-	-	409,618	-
**3016	한식단청공편수	-	250,000	-	279,896
3017	한식석공조공	295,638	267,610	284,211	374,422
**3018	한식미장공조공	-	227,310	224,000	-

참고

주)\*표시 직종은 조사현장수가 5개 미만 직종임

\*\*표시 직종은 조사되지 않은 직종이므로 그 적용은 전후년도(또는 시기)의 당해직종의 시중노임 단가에 그간의 전체 평균시중 노임단가 증가율을 적용하여 해당년도(또는 시기)의 당해직종의 노임단가를 산정할 수 있음.

※ 출처: 해당 자료는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시중노임단가)' 중 문화재분야 부분만 발췌하여 제작한 것임

2023년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시험일정

• 문화재수리기술자 국가자격 시험 •

구분	접수기간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1차 시험	2.20.(월)~2.24(금)	3.25(토)	5.10(수)
2차 시험	6.26.(월)~6.30(금)	7.22(토)	8.9(수)

• 문화재수리기능자 국가자격 시험 •

접수기간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2.13.(월) ~ 2.17.(금)	4.10(월)~4.19.(수)	5.24(수)

※ 참고사항

시험 세부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이트(큐넷)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 수리분야 연구 최신 간행물

	<p>책명 우리나라 문화·자연유산의 기후변화 대응현황과 과제</p> <p>발행처 국립문화재연구원 안전방재연구실</p> <p>발행일 2022.9.</p> <p>비고 해당 보고서는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유산 분야 기후변화 대응 현황을 파악하고, 단기·중장기적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연구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담았다. 본문에서는 ▲ 기후변화의 이해와 전망, ▲ 국내외 문화·자연유산 관련 기후변화 대응 정책 동향, ▲ 우리나라 문화·자연유산별 기후변화 영향을 주로 다뤘으며, 결론에서 우리 유산의 보존을 위해 시행해야 할 과제 등을 정리하여, 향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연구방향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p>
	<p>책명 건조물문화재 안전관리 조사지침</p> <p>발행처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p> <p>발행일 2022.10.</p> <p>비고 본 지침은 객관적·과학적 조사를 통해 건조물 문화재의 위험을 보존하기 위한 손상·훼손 예방방안으로서, 국립문화재연구원 안전방재연구실에서 '국보·보물 건조물 문화재의 보존·관리 규정(문화재청 훈령 제585호, 2022. 1. 1. 일부개정)'에 근거하여 국가지정 건조물 문화재(국보, 보물)를 대상으로 수행 중인 건조물 문화재 조사 관련 내용을 정리하여 수록하였다.</p>
	<p>책명 2022 돌,나무,흙 ISCARSAH 국제 전문가 워크숍 학술세미나 결과보고서</p> <p>발행처 국립문화재연구원 건축문화재연구실</p> <p>발행일 2022.11.</p> <p>비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ICOMOS 헌장 2003, 건축유산의 분석·보존·구조적 복원에 관한 ISCARSAH 원칙</li><li>» 건축유산의 보존과 복원에 관한 현재 이슈 사례</li><li>» 한국의 문화재수리법 개정과 제도의 의미</li><li>» 건축유산 보존원칙과 한국의 수리</li><li>» 건축유산 수리연구 및 적용</li><li>» 건축유산의 분석, 보존 및 수리복원 관한 ISCARSAH 지침</li><li>» 20세기 건축유산의 보존과 수리의 이슈: 제도와 기준</li><li>» 20세기 건축유산의 보존과 수리의 이슈: 기술과 재료</li><li>» 석조 구조에 초점을 맞춘 20세기 근현대 건축유산의 보존과 복원에 관한 사례연구</li><li>» 20세기 근현대 건축유산 보존 및 복원에 대한 사례연구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중심으로</li><li>» 20세기 건축유산 구조물 보존 및 복원에 대한 사례연구, 일본 건축유산 내진 보강</li></ul>
	<p>책명 전통조경 보존관리 국제학술대회 자료집</p> <p>발행처 문화재청</p> <p>발행일 2022.12.</p> <p>비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플로렌스 헌장: 역사적 정원, 문화 경관 및 기후변화 - 엘리자베스 브라벡</li><li>» 일본의 역사정원의 보존정책과 문화재 정원의 복원 및 시민이용사례 - 토모키 카토</li><li>» 영국의 정원 및 경관 보존 원칙사례 연구: 스토크, '영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택' - 매리언 하니</li><li>» 한국의 역사정원, 전통조경 보존정책과 사례- 신현실</li></ul>

	<p>책명 보존과학연구 제43집</p> <p>발행처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p> <p>발행일 2022.11.</p> <p>비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나주 북암리 정촌고분 출토 아식의 재료학적 특성의 연구</li><li>» 경주 쪽샘 41호 출토 백화수피제 관모의 제작기법 연구</li><li>» 가야문화권 출토 적색 안료의 분석 연구</li><li>» 부여 쌍북리 출토 칠기목재의 과학적 조사와 보존처리</li><li>» 괘불의 구조와 손상 유형</li><li>» 공주 영문사 칠상탱화의 미술사적 특징 및 과학적 분석, 보존처리 연구</li><li>» 대형불화(괘불탱)의 미생물 분포에 관한 조사연구</li><li>» 흰게미 탐지견 반응결과 및 피해 발생 경향</li><li>» 문화유산 방사성 탄소 연대측정을 위한 가속 질량분석기 구축 및 안정화 현황</li></ul>
	<p>책명 전통 인공 무기안료</p> <p>발행처 국립문화재연구원</p> <p>발행일 2022.12.</p> <p>비고 이 보고서는 국립문화재연구원 복원기술연구실에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전통 인공 무기안료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 성과를 담은 것으로 ▲ 단청용 전통 인공 무기안료의 특성 규명, ▲ 전통 채조법에 대한 원천기술 확보 및 품질기준 마련, ▲ 연구과정에서 획득한 재현안료, 시판안료에 대한 과학적 분석 정보 등 주요 핵심결과를 수록하였다.</p>
	<p>책명 경복궁 후원 기초조사 연구</p> <p>발행처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p> <p>발행일 2022.12.</p> <p>비고 경복궁 후원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료에 대한 발굴과 분석을 통해 각 시대별, 전문 분야별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경복궁 후원의 건축물 및 사설물, 조경, 건물지 등 현황에 대한 기초 조사 및 관련 주변 영역의 현황조사 실시한 내역을 수록하였다. 경복궁 후원의 건조물 문화재를 포함한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가치 조사를 통해 체계적인 보존·관리·활용 방안 제시하고 있다.</p>
	<p>책명 문화재 보존과학센터 2014~2018 성과자료집</p> <p>발행처 국립문화재연구원 문화재보존과학센터</p> <p>발행일 2022.12.</p> <p>비고 문화재보존과학센터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이순신 난중일기, 용건릉 출토 도자기 등 주요 유물을 보존처리 및 조사한 문화재를 정리하여 수록하였다.</p>

해당 도서는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문화재 수리

‘문화재수리’란 문화재의 보수, 복원, 정비 및 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말하며, 원형보존에 따른 고도의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일이므로 문화재에 대한 특별한 기능과 기술을 갖춘 자로서 문화재청에 등록된 문화재 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와 시·도에 등록된 문화재수리업자만이 할 수 있다.

## 문화재수리의 종류

문화재 실측설계	실측설계란 문화재수리 또는 기록의 보존을 위하여 문화재를 실측하거나 고증조사 등을 통하여 실측도서나 설계도서 등을 작성하는 것	
문화재 감리	문화재감리는 일반감리와 책임감리로 구분되며, 일반감리란 문화재수리가 설계도서나 그 밖의 관계 서류 및 관계 법령의 내용대로 시행되는지를 확인하고 문화재수리에 관하여 지도·감독하는 업무이다. 책임감리는 일반감리와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자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업무	
종합문화재수리	보수단청업	- 건축·토목공사 및 단청의 시공 - 보수단청업과 관련된 고증·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 등
전문문화재수리	조경업	- 조경공사의 시공 - 조경업과 관련된 고증·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 등
	보존과학업	- 보존처리(동산문화재는 제외)의 시공 -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의 수립 및 보존처리 - 보존과학업과 관련된 고증·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 등
	식물보호업	- 식물의 보존·보호를 위한 병충해 방제, 수술, 토양개량, 보호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의 시공 - 식물보호업과 관련된 진단, 수리보고서의 작성 등
	단청공사업	- 단청의 시공 - 단청공과 관련된 고증·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 등
	목공사업	목공사의 시공
	석공사업	석공사의 시공
	번와공사업	번와공사(기와를 해체하거나 이는 일)의 시공
	미장공사업	미장공사의 시공
온돌공사업	온돌공사의 시공	

# 협회 안내

문화재수리협회는 문화재수리·실측설계·감리에 대한 국민의 이해증진과 기술의 향상을 위해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입니다.

## » 설립근거

제42조(문화재수리협회의 설립)

- ① 문화재수리업자들은 품위의 유지, 기술의 향상 등 문화재수리등과 관련된 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제사업 등을 위하여 문화재수리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문화재수리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③ 문화재수리협회는 주된 사무소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문화재수리협회의 회원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며, 필요에 따라 지회나 분회를 둘 수 있다.
- ⑤ 문화재수리협회 정관의 기재 사항과 공제사업, 문화재수리협회의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주요사업

1. 문화재수리, 문화재실측설계 또는 문화재감리(이하 “문화재수리등”이라 한다)에 대한 국민의 이해증진에 관한 사업
2. 문화재수리 및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감리업(이하 “문화재수리업등”이라 한다)의 개선과 발전에 관한 사업
3. 회원과 그 종사자들의 품위보전 및 윤리 확립과 복리증진에 관한 사업
4. 문화재수리등과 관련된 수리실적 및 종사자 경력관리
5. 문화재수리등과 관련된 공제사업
6. 문화재수리등과 관련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위탁된 사무
7. 문화재수리등 및 문화재수리업등과 관련된 법령, 제도, 시책의 개선 연구 및 시행 지원에 관한 사업
8. 문화재수리등의 품질 및 기술 향상에 관한 사업
9. 그 밖에 협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 연혁

- 2011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제정 설립근거 마련
- 2015 문화재청 특수법인 설립인가 「문화재청 제2015-25호」
- 2016 「문화재수리 경력실적관리 구축 운영 매뉴얼」 연구 용역수행
- 2017 「문화재수리재료센터 건립 타당성 검토기본구상」 연구 용역수행
- 2018 「문화재수리경력 및 실적관리 등 업무 위탁기관 지정 「문화재청고시 제2018호-6호」
- 2019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경력·수리능력평가 관리) 구축·운영
- 2020 Heritage Korea Award 2020 수리복원 부문 문화재청 표창 수상  
문화재수리업계 경영상태 평균비율 산정 및 공시
- 2021 문화재업종실적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조달청 정보연계(실적·경영상태) 시행  
문화재 실측설계·감리 실적 시범사업 시행
- 2022 문화재수리종사자 자율교육 관리 위탁기관 지정 「문화재청고시 제2022-25호」  
문화재수리업등 면허등록 자본금확인서 발급 시행



문화재수리 회원리스트

2023년 1월 기준

지역	업체명	전화번호	업종
서울특별시	(주)새한티엠씨	02-723-9404	보수단청업
	라운인 주식회사	02-2667-0506	보수단청업
	(주)현창문화재기술단	02-3665-8005	문화재감리업
	(주)별터건축사사무소	02-561-7133	문화재실측설계업, 문화재감리업
	원택건설(주)	02-498-5471	보수단청업, 조경업
	희우건설(주)	02-3436-0722	보수단청업
	(주)토형산업	02-325-6733	보수단청업, 조경업
	(주)진강건설	02-2135-5922	보수단청업
	주식회사 담원문화유산	02-485-0709	보존과학업
	(주)금성종합건축사사무소	02-534-1471	문화재실측설계업, 문화재감리업
	진수종합건설 주식회사	02-577-9371	보수단청업
	(주)그룹이십일	02-588-2021	조경업
	세림산업(주)	02-6332-7784	보수단청업
	(주)예술디자인 건축사사무소	02-467-4830	문화재감리업
	(주)천지인조경기술사 건축사사무소	02-532-5777	조경업
	(주)경복영건	02-389-6909	문화재감리업
	(주)연경당건축사사무소	02-319-1005	문화재실측설계업
	조선건축사사무소	02-3675-7963	문화재실측설계업

지역	업체명	전화번호	업종
경기도	(주)현영종합건설	031-424-7666	보수단청업, 조경업
	(주)시공인건축사사무소	070-8818-2413	문화재감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주)문화재수리연구소	031-971-8342	조경업
	(주)한누리종합건설	02-3159-1531	보수단청업
	(주)한양고건축	031-912-7852	보수단청업, 조경업
	주식회사 가원조경	02-2617-8885	조경업
	주식회사 광장건설	031-556-5671	보수단청업
	선혜종합건설(주)	031-562-9400	보수단청업

지역	업체명	전화번호	업종
경기도	주식회사 송림	031-591-3904	보수단청업, 조경업
	(주)건도	032-721-5469	보수단청업, 조경업
	다인종합건설(주)	031-722-0363	보수단청업
	소나무종합건설(주)	031-707-3354	보수단청업, 조경업
	(주)고택	031-415-5503	보수단청업, 조경업
	(주)함께	031-241-8983	보수단청업, 조경업
	(주)엔가드	031-674-8379	보존과학업
	성림종합건설(주)	031-381-7001	보수단청업
	(주)서원	031-773-6992	보수단청업
	진성주식회사	031-884-8971	보수단청업
	예담문화재(주)	070-8849-7601	보존과학업
	대현주식회사	031-947-9476	보수단청업
	(주)태향건설	031-941-0833	보수단청업
	그린종합조경	031-354-1760	조경업
	금세기종합건설(주)	031-225-0494	보수단청업

지역	업체명	전화번호	업종
강원도	(주)고채	033-645-0113	보수단청업
	삼도문화재 주식회사	033-648-8234	보수단청업
	나우건설주식회사	033-642-9140	보수단청업
	(주)광야	033-636-0198	보수단청업
	성일문화재(주)	033-575-8091	보수단청업
	주식회사 기림 건축사사무소	033-747-6390	문화재감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주)우리문화	033-742-4803	보수단청업
	(주)이음건축사사무소	033-748-7516	문화재실측설계업
	신진종합건설(주)	033-747-4381	보수단청업

지역	업체명	전화번호	업종
인천광역시	(주)고진티앤씨	032-934-5554	보수단청업
	송림종합건설(주)	032-555-0487	보수단청업

지역	업체명	전화번호	업종
충청남도	(주)지유산업개발	070-7699-4333	보수단청업
	방림조경건설(주)	041-854-3657	조경업
	(주)세계유산연구원	070-8277-4171	보존과학업
	세운 주식회사	041-857-0134	조경업
	명현건설(주)	041-856-5196	보수단청업, 조경업
	(주)우진토건	041-858-0470	보수단청업
	이상건축문화주식회사	041-852-9702	보수단청업
	(주)와이엠종합건설	041-734-7734	보수단청업
	주식회사 다산건설	041-735-8420	보수단청업
	성진토건(주)	041-837-1132	보수단청업
	(주)삼장	041-837-0310	조경업
	화경조경(주)	070-8881-4635	조경업
	(주)대흥환경엔지니어링	041-833-2221	보수단청업, 조경업
	설웅 주식회사	041-833-0489	보수단청업, 조경업
	주식회사 미래 건축사사무소	041-837-1470	문화재실측설계업
	(주)백마종합건설	041-688-3038	보수단청업
	(주)춘추건축사사무소	041-665-7472	문화재실측설계업
	춘추문화재수리기술단	041-665-7472	문화재감리업
	(주)성지	041-952-0964	보수단청업
	가산종합건설(주)	041-549-3226	보수단청업, 조경업
	대한조경건설 주식회사	041-331-0483	조경업
	성원건설(주)	041-334-7151	보수단청업
	예은이앤지(주)	041-334-1118	보수단청업
	(주)사라문화재	010-5407-4864	보수단청업, 조경업
	(주)고탑조경	041-563-0489	조경업
	(주)아름터 건축사사무소	041-567-8570	문화재실측설계업
	주식회사 한국문화재기술원	041-688-9555	보수단청업
	(주)고택	041-631-4226	보수단청업

지역	업체명	전화번호	업종
대전광역시	전아건설(주)	042-484-4758	보수단청업
지역	업체명	전화번호	업종
충청북도	서도건설주식회사	043-834-5433	보수단청업
	원창건설(주)	043-266-3901	보수단청업
	(주)성익	043-235-7477	보수단청업
	가람문화재 주식회사	043-272-8019	보수단청업, 문화재감리업
	수아건설주식회사	043-855-5891	보수단청업
지역	업체명	전화번호	업종
대구광역시	부운건축사사무소	053-421-6996	문화재실측설계업
지역	업체명	전화번호	업종
경상북도	(주)세왕종합건설	054-371-3235	보수단청업
	(주)태림건축	053-287-0311	보수단청업
	(주)유신	054-745-0192	보수단청업
	(주)송천문화	054-941-1638	보수단청업
	(주)한운문화재수리	054-742-1124	보수단청업
	예이제엔지니어링(주)	054-774-9388	보수단청업
	서진건설(주)	054-744-7701	보수단청업
	아람문화재(주)	054-745-3444	보수단청업, 보존과학업
	기룡건설(주)	054-773-7222	보수단청업, 조경업
	(주)경송종합건설	054-954-9288	조경업
	(주)동천	054-955-4406	조경업
	(주)넥스트엔파트너스	054-910-9353	보수단청업
	(주)송백보존테크	054-741-7784	보존과학업
	(주)대성문화재	054-554-3905	보수단청업
	(주)일토종합건설	054-555-1141	보수단청업
	(주)석경	054-672-7701	보수단청업
	(주)보성	070-7521-1317	보수단청업



문화재수리 회원리스트

2023년 1월 기준

지역	업체명	전화번호	업종
경상북도	(주)고가	054-674-3567	보수단청업
	(주)금송	054-536-6614	보수단청업
	(주)동현	054-933-0056	보수단청업
	(주)남성	054-931-3272	조경업
	(주)미주건설	054-932-0434	보수단청업
	(주)신화건설	054-859-0822	보수단청업
	동신건설(주)	054-858-5519	보수단청업
	(주)송원	054-842-6677	보수단청업
	(주)이음	070-4115-4453	보수단청업
	(주)다경	054-843-6902	보수단청업
	동남건설(주)	054-858-5059	보수단청업
	(주)선재	054-843-7878	보수단청업
	오원문화유산	054-856-8270	보존과학업
	세방건설(주)	054-859-3271	보수단청업
	(주)우인건설산업	054-734-6507	보수단청업
	(주)구룡건설	010-2992-3139	보수단청업
	영동건설(주)	054-634-5550	보수단청업
	(주)창신종합건설	054-635-5536	보수단청업
	태창종합건설(주)	054-632-9646	보수단청업
	(주)양백	054-636-1239	보수단청업
	(주)가온	054-336-3709	보수단청업
	(주)서영문화재	054-337-3367	보수단청업
	(주)삼아건설	054-655-2766	보수단청업
	(주)정우	054-652-2570	보수단청업
	(주)경보	054-652-2000	보수단청업
	(주)영건문화	054-654-6628	보수단청업
	(주)지전건설	054-373-8973	보수단청업
	(주)고경	054-373-2600	보수단청업

지역	업체명	전화번호	업종
경상남도	주식회사 인탁건설	055-943-6481	보수단청업
	(주)송암토건	055-674-7197	보수단청업
	주식회사 창성문화재	055-672-9268	보수단청업
	(주)소요	055-325-5911	보수단청업
	화성종합문화재(주)	055-333-2358	보수단청업
	대호전통문화(주)	055-332-4171	보수단청업
	흥기종합건설 (주)	055-329-2597	보수단청업
	(주)백호종합건설	055-355-7222	보수단청업
	주식회사 토우	055-835-3833	조경업
	(주)소아원	055-832-3838	보수단청업, 조경업
	금종종합건설주식회사	055-972-6670	보수단청업
	(주)해인문화재	055-974-0778	보수단청업
	금명종합건설(주)	055-974-0804	보수단청업
	주식회사 예숲	055-383-4775	조경업
	남영종합건설(주)	055-573-1664	보수단청업
	(주)서광	055-573-0310	보수단청업
	(주)흥인건설	055-744-7745	보수단청업
	(주)엠펙건축사사무소	(055)763-5050	문화재실측설계업
	주식회사 두영문화재보존	055-532-0651	보존과학업
	주식회사 고영문화재	055-521-5505	보수단청업
	(주)현창종합 건축사사무소	055-297-6201	문화재실측설계업
	주식회사 청암문화재	055-584-5998	보수단청업
	주식회사 한결문화재	055-583-1288	보수단청업
	주식회사도원아텍	055-931-9621	보수단청업
지역	업체명	전화번호	업종
전라남도	주식회사 거림종합건설	061-375-2090	보수단청업
	(주)진영	061-433-6508	보수단청업

지역	업체명	전화번호	업종
전라남도	화성건설(주)	061-334-2526	보수단청업
	주식회사 대륜 건설	061-335-5838	보수단청업
	다보종합건설(주)	061-336-1153	보수단청업, 조경업
	(주)대도종합개발	010-2620-9700	조경업
	고구려 주식회사	061-381-7580	보수단청업
	주식회사 두물문화재	061-381-3204	보수단청업
	(주)우리종건	061-727-0456	보수단청업
	이도건설산업 주식회사	061-751-3032	보수단청업
	송도건설(주)	061-755-7623	보수단청업, 조경업
	우보건설(주)	061-275-8169	보수단청업
	태청건설(주)	061-535-7784	보수단청업
	(주)인스나인	061-373-9922	보존과학업
	(주)영주동천	061-374-1529	조경업
	(주)삼진건축사사무소	061-371-1108	문화재실측설계업, 문화재감리업
	주식회사 한들	061-374-2001	보수단청업, 조경업
지역	업체명	전화번호	업종
전라북도	(주)더한	063-576-0008	보수단청업
	(주)영화문화재	063-564-0345	보수단청업
	(주) 창청	063-544-0077	보수단청업
	(유)남전종합건설	063-632-7320	보수단청업
	(주)동강종합건설	063-625-3103	보수단청업
	(유)금경종합건설	063-247-7510	보수단청업
	(주)호검건설	063-855-1310	보수단청업
	(주)거림문화재	070-4265-0815	보존과학업
	주식회사 한백건설	063-211-9339	보수단청업
	(주)문화재종합건설	063-221-7515	보수단청업
	신평문화재주식회사	063-225-0806	문화재감리업

지역	업체명	전화번호	업종
전라북도	(주)조양	063-251-3771	보수단청업
	(주)토을	063-228-6730	보수단청업
	혜전건설(주)	063-228-0150	보수단청업
	주식회사 도시건축사사무소	063-714-3211	문화재실측설계업, 문화재감리업
	(주)상락문화재수리	063-535-9913	보수단청업
	(주)예원종합건설	063-571-0403	보수단청업
제주도			
	대원종합건설(주)	064-712-0003	보수단청업
	기덕종합건설 주식회사	064-744-2800	보수단청업, 조경업
	유상건설주식회사	064-711-9046	보수단청업, 조경업
	(주)탐라문화재개발	064-733-0090	석공사업
	(주)동인종합건설	064-733-1609	보수단청업, 식물보호업
	정담원 주식회사	064-752-3201	조경업
	(주)동해건설	064-732-1607	보수단청업, 조경업, 식물보호업
	삼영건설(주)	064-764-0488	보수단청업, 조경업
	태이재 주식회사	064-743-0227	보수단청업
	포레스트나무병원 주식회사	064-749-2741	식물보호업



문화재수리업자등 지역별 등록현황

2022년 12월 31일 기준 (단위 : 업체수)

지역	종합 문화재 수리업	전문문화재수리업									문화재 실측 설계업	문화재 감리업	계
	보수 단청업	조경업	보존 과학업	식물 보호	단청 공사업	목 공사업	석 공사업	반와 공사업	미장 공사업	온돌 공사업			
서울	17	12	10	-	2	1	-	-	-	-	10	11	63
부산	-	-	1	2	1	-	-	1	-	-	-	-	5
대구	-	1	-	-	-	-	-	-	-	-	2	-	3
인천	4	-	-	-	-	-	-	-	-	-	-	-	4
광주	-	-	-	-	-	-	-	-	-	-	1	-	1
대전	1	1	-	-	-	-	-	-	-	-	-	-	2
울산	-	-	-	1	-	-	-	-	-	-	-	-	1
세종	-	-	-	-	-	-	-	-	-	-	-	-	0
경기	30	14	7	4	1	-	2	-	1	-	11	6	76
강원	14	-	2	8	-	-	-	-	-	-	4	4	32
충북	16	-	3	2	-	-	-	-	-	-	3	3	27
충남	35	19	9	4	-	-	1	-	-	-	9	7	84
전북	27	2	7	2	1	1	-	-	-	-	5	5	50
전남	28	6	9	11	2	-	-	-	-	-	7	7	70
경북	70	16	10	11	-	-	-	-	-	-	18	11	136
경남	29	3	5	6	1	-	-	-	-	-	5	4	53
제주	8	5	-	15	-	-	1	-	-	-	1	-	30
합계	279	79	65	64	8	2	4	1	1	0	76	58	637

회원가입 안내

회원의 구분

정회원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또는 문화재감리업자
준회원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또는 관련기술종사자
특별회원	문화재수리와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자격을 갖춘 수리관련 전문가 및 관심이 있는 자

회원혜택

혜택구분	회원사	비회원사
G2B (조달청 나라장터) 적격심사 DB자료(실적 및 경영상태) 정보연계	자동 정보연계	해당사항없음
문화재수리 업종실적관리시스템 통상회비 요율	- 요율 0.1% 적용	- 요율 0.2% 적용
적격심사용 실적 증명서 수수료	- 무료 - 온라인 발급	- 건당 5,000원 - 온라인 발급 불가능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발급 수수료	- 무료 - 온라인 발급	- 건당 5,000원 - 온라인 발급 불가능
NICE디엔비 신용평가 수수료	할인	해당사항없음
협회 간행물 구독비	무료	간행물 별 비용발생
협회 문화재수리종사자 교육수강비	무료	교육 별 비용발생

회비

구분	업종	입회비	연회비
정회원	종합문화재수리업	700 만원	100 만원
	전문문화재수리업		
	문화재 실측·설계업	350 만원	50 만원
	문화재 감리업		
준회원	-	10 만원	5 만원
* 납부계좌 : 국민은행 213601-04-177006 문화재수리협회			

※ 회비 안내

-입회비: 가입신청서 제출 후 회비 입금

-연회비: 가입신청서 제출 후 회비 입금(가입연도 연회비 면제)

※ 가입신청 제출 이후 입회비가 정상적으로 납부되어야 정회원 가입처리가 진행됩니다.



